

열사에 대한 애도는 불가능한가?

최서윤**

김지하의 『애린 1·2』를 중심으로*

초록 이 글은 김지하가 생명 사상으로서의 전회 이후에 출간한 『애린 1·2』(실천문학사, 1986)를 ‘열사에 대한 애도 불가능성’이라는 시대의 증상을 반영한 하나의 사례로서 분석하기 위해 쓰였다. 한국 현대 정치사에서 ‘열사’는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여 권위주의적 정권의 폭력성을 고발함으로써 역사의 영웅이 된 사람을 뜻한다.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이후 열사의 분신 투쟁이 본격적으로 발생했다. 이러한 ‘열사의 정치학’에 내장된 난제(aporia)에 주목한 연구들이 최근 발표되었다. 그러한 선행 연구에 동의하며, 이 글은 1980년대 김지하의 생명사상으로서의 전회가 그러한 난제와 연관하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애린』 연작에 대한 징후적 독해를 수행했다. 『애린』 연작은 생명 사상으로서의 전회가 재현된 텍스트이다. 김지하가 생명을 모든 것의 ‘근원’으로 제출했음은 유명하다. 『애린』 연작에 재현된 근원을 향한 운동은 ‘신생에 대한 충동’에 의해 추동된다. 신생에 대한 충동은 시원(始原)으로 회귀함으로써 새로운 주체 되기를 추동하는데, 그러한 주체화 기획은 『애린』 연작에서 애린과 시적 주체와의 ‘만남’으로 재현된다. 따라서 『애

* 이 글은 최서윤(2020), 「시인의 ‘지계꾼’ 되기는 가능한가?: 김지하의 1970년대 문학사적 난제에 대한 일 고찰」, 『현대문학의 연구』 70, 한국문학연구학회의 후속 논문이다. 두 글을 잇는 김지하의 1970~1980년대 시 세계에 대한 문제의식, 그리고 『애린』 연작에 대한 생각은 2019년 8월 23일에 열린 제164차 반교어문학회 학술대회에서 「저항은 혁명으로 진화될 수 있는가?: 김지하의 『황토』·『애린』을 중심으로」를 통해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이 글의 서론과 생명 사상에 대한 부분은 최서윤(2020), 「한국 현대시에 나타난 비동일적 시학으로서의 추(醜) 연구: 이상·김수영·김지하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 124-134의 내용을 상당 부분 수정, 확대하여 재기술했다. 부족한 글을 살펴봐 주시고 값진 조언을 주신 토론자 박연희 선생님, 그리고 익명의 심사자 선생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린다. 여전히 이 글에서 해결하지 못한 많은 부분은 추후의 과제로 삼고자 한다.

** 광주과학기술원 기초교육학부 강의전담교수

린』 연작을 시적 주체가 절대적 진리인 생명을 찾는 텍스트로 논의한 선행 연구에 비판적 거리를 두고, 이 글에서는 시적 주체와 애린과의 만남 불가능성을 분석했다. 이를 통해, 『애린』 연작이 ‘열사에 대한 애도 불가능성’으로 표상된 시대의 증상을 성찰하게 함으로써 당대의 문학사의 별자리를 탈구축할 것을 요청한다는 점에서 문학사적 의의가 있음을 규명했다.

주제어 김지하, 『애린』, 시적 주체, 신생에 대한 충동, 억압, 합체, 초월성, 열사의 정치학, 불가능성

1. 김지하와 ‘열사’라는 굴레(bondage)¹

김지하 시인은 1970년 5월 『사상계』에 시 「오적」(五賊)을 발표하고, 박정희 유신 정권에 저항하는 대표적인 문인(文人) 중 한 명으로 급부상했다. 그렇게 시인이 자신의 이름을 문단과 세상에 널리 알렸던 1970년은, 젊은 노동자 전태일의 분신자살이라는 충격적인 사건²이 발생한 해였다. 하지만 1970년대의 민주화 운동과 노동운동을 특징짓는 ‘김지하와 전태일’이라는 (사후적으로 구성된) 상징³이 유효하지 않음은 잘 알려져 있다. 1991년 5월,

1 ‘굴레’(bondage)라는 표현은 영국의 소설가 서머셋 몸(William Somerset Maugham, 1874~1965)의 장편 소설 제목인 “인간의 굴레에서”(Of Human Bondage)에서 가져온 것이다.

2 전태일은 “기업주는 근로기준법을 지켜 달라. 15, 16세의 어린아이들이 일요일도 없이 하루 16시간씩 혹사당하고 있으니 당국은 이런 사태를 시정해 달라”고 외치며 평화시장 한복관에서 자신의 몸에 불을 질렀다(「酷使 등 항의…焚身. 평화시장 재단사, 병원서 숨져」,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경향신문』, 1970. 11. 14, p. 7. 2022. 1. 16.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publishDate=1970-11-14&officeId=00032&pageNo=1>).

3 그로부터 10여 년이 흐른 1980년대 중반에 한 비평가는 “1970년에 발표된 김지하의 담시(譚詩) 「오적」(五賊) 및 시집 『황토』의 발표 및 출간과, 같은 해 11월 평화시장 재단사 전태일의 분신자살 사건이 각각 70년대의 지식인들의 민주화 운동과 노동자들의 민주노동운동의 개시를 알리는 상징적인 사건”[현준만(1985), 「시와 정치적 상상력」, 임현영

김지하는 『조선일보』에 일명 〈죽음의 굿판 당장 견어치위라〉로 널리 알려진 글 「젊은 벗들! 역사에서 무엇을 배우는가」를 발표했다. 그 글의 일부를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생명이 신성하다는 금과옥조를 새삼 되풀이 하고 싶지는 않다. 하나 분명한 것은 그 어떤 경우에도 생명은 출발점이요 도착점이라는 것이다. 정치도 경제도 문화도, 심지어 종교까지도 생명의 보위와 양생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그로부터 출발하는 것이지 그 반대는 아니다. 근본을 말할자는 것인가? 신외무물이 무슨 뜻인가? 당신들 자신의 생명은 그렇게도 가벼운가? 한 개인의 생명은 정권보다도 더 크다. 이것이 모든 참된 운동의 출발점이어야 한다.⁴

위의 인용문에서 글의 수신자로 명명된 “당신들”은 1991년 5월 투쟁⁵의 주요 주체였던 대학생들이다. 김지하는 앞서 언급한 제목에서 그들을 “젊은 벗들”로 호명했다. 중요한 것은 분신이 5월 투쟁의 형식이었다는 점이다.⁶ 1991년 4월 29일, 전남대 박승희 학생은 “너희는 가슴에 불을 품고 싸워야 하리. 적들에 대한 증오와 불타는 적개심으로 전선의 맨 앞에 나서서 투쟁해야 하리. 그 싸움이 네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 2만 학우 한 명 한

외, 『김지하: 그의 문학과 사상』, 세계, p. 73]으로 밝혔다.

- 4 김지하(1991b), 「젊은 벗들! 역사에서 무엇을 배우는가」, 조선일보 아카이브, 『조선일보』, 2022. 1. 16(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1991&M=05&D=05&ID=9105050301).
- 5 1991년 5월 투쟁은 백골단의 강경 진압에 의한 강경대 학생(명지대)의 타살 사건으로 촉발되었으며, “민중운동 세력이 1980년대 내내 축적한 제도적·비제도적인 자원과 역량을 결집시킨 투쟁”[김정환(2020), 『비혁명의 시대: 1991년 5월 이후 사회운동과 정치철학』, 빨간소금, p. 173]이었다.
- 6 “5월 투쟁에서 분신은 운동을 촉발시키는 주요 투쟁 형태였으며, 이는 열사들의 죽음을 추모하는 ‘장례식 투쟁’으로 이어지기도 했다.”[김정환(2020), p. 41]

명의 손을 잡고 하는 함께 하는 싸움이어야 하리”⁷라는 구절이 포함된 유서를 남기고, 앞서 언급한 전태일과 동일한 방식으로 생을 마감했다. 하지만 위의 인용문에서도 드러나듯이, 김지하의 글에서는 수없이 스러져간 젊은 생명에 대한 깊은 슬픔과 노태우 정권의 폭력성에 대한 비판은 찾아볼 수 없다. 분신자살로써 정권에 저항하는 학생들을 그는 규탄했다.

김지하 시인의 1970년대 행보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은 “불가사의한 일”⁸로 받아들여졌으며, 더 나아가 ‘오적의 시인 김지하’의 죽음이 선고⁹되었다. 소설가 방현석은 「김지하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에서 “당신의 허무주의에 불과한 거짓 생명론에서가 아니라 상상을 초월하는 고문과 시련 속에서도 자신의 신념과 민중의 요구에 끝없이 충실하게 살다간 김병곤 선배의 죽음과 지금도 감옥에 갇혀 있는 김근태 선배의 풍모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따스한 인간사랑을 만납니다. 지하, 당신이 기나긴 모색 끝에 찾아낸 생명론은 조금도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¹⁰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방현석의 강도 높은 비판에서 ‘생명론’에 대한 언급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주지하듯이, 이 생명론은 1980년 김지하가 출소 후 본격적으로 전개한 ‘생명사상’이다. 1981년 그는 로터스상(1975) 수상 연설에서 “오늘날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의 모든 작가·예술가·지식인·과학자와 종교인들의 임무”가 “민중 자신이 주체적으로 ‘존엄한 생명에 대한 존중과 사랑’이라는 보편진리를 모든 가치관의 기초로 한 영성적이며 공동

7 박승희(1991), 「박승희 열사 유서」, 박승희정신계승사업회 홈페이지, 2022. 2. 21(박승희 열사.org/index.php/keepsake/?vid=1).

8 “참으로 불가사의한 일이 있습니다. 김 시인이 『조선일보』에 쓴 글에는 노태우 정권의 본질과 반민주·반민족성에 관한 구체적 언급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경박하게’ 생명을 버리는 젊은이들과 죽음을 ‘악용’하려는 세력에 대한 질타와 매도만 있을 뿐입니다.” [김종철(1991), 「김지하 시인, 돌아오십시오」, 『월간 말』, 월간말, p. 34]

9 「‘소신과 배신’ 사이의 김지하」, 시사저널 웹페이지, 『시사저널』, 1991. 5. 23. 2022. 1. 16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106621>).

10 방현석(1991), 「김지하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월간 말』, 월간말, p. 79.

체적인 생존양식, 즉 민중 자신 속에 이미 숨겨져 있는 후천을 새롭게, 자각적인 형태로 드러내고 확장하는 일에 민중의 일원으로서, 민중의 입으로서 그것을 표현하고 발전·심화시키며, 거기에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것”¹¹임을 역설했다. 따라서 앞서 살핀 인용문에 나타난 “그 어떤 경우에도 생명은 출발점이요 도착점”이라는 주장은 생명이 “보편진리”임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렇다면, 김지하에게 분신 투쟁이 “보편진리”에 반(反)하는 행위로 보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의 생명 사상으로의 전회는 일견 앞서 언급한 “오적의 시인 김지하의 죽음” 등으로 판단될 수 있겠다.

문제는 정치적 저항 행위로서의 ‘분신자살’에 난제(aporia)가 내장되었다는 점이다. 분신투쟁은 “극단적인 자기희생을 통해 운동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운동의 대상과 방관자들에게 분명한 정치적 메시지를 던지기 위한 ‘정치적 자살’”¹²을 의미한다.¹³ 중요한 것은 분신투쟁이 “열사의 정치학”¹⁴과 관계가 깊다는 점이다. 열사는 “‘운동’의 과정에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거나 권력에 의해 죽임을 당한 사람”¹⁵을 뜻한다. 그러한 열사의 분신자살은 ‘역사적 죽음’으로 등록되어 공동체에서 추모된다. 그러나 공동체가 아닌 ‘개인’에 초점을 맞추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신 투쟁이 한 사람의 생명을 파괴하는 일임을 간과하기 어렵다. 분신투쟁으로써 열사가 되는 일은 개인이 “자기를 향한 폭력”(self-directed violence) 중 가장 극단적 형태인 자

11 김지하(2002c), 「창조적 통일을 위하여」, 『김지하전집 3』, 실천문화사, pp. 565-566.

12 이창언(2009), 「분신자살(焚身自殺)의 구조와 메커니즘 연구: 학생운동을 중심으로」, 『기억과 전망』 21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p. 154.

13 천연하면, 1980년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이전까지 한국 정치사에서 분신은 예외적인 사건이었다. 앞서 언급한 전태일의 죽음이 충격적이었던 까닭 중 하나는 선례가 거의 없었던 일이라는 점에 있었다. 자세한 내용은 이창언(2009), p. 154. 참고.

14 “한국의 ‘열사의 정치학’은 ‘전태일’의 표상을 기점으로 하고, 5·18광주라는 결정적인 역사적 계기와 1980년대 대학생들의 희생에 의해 확대되고 사회화된 것이다.” [천정환(2021), 「끝나지 않은 5월, 1991년」, 『송배 애도 적대: 자살과 한국의 죽음정치에 대한 7편의 하드보일드 에세이』, 서해문집, p. 24]

15 천정환(2021), p. 35.

살¹⁶을 수행하고 역사적 존재가 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주체화 과정으로서의 열사-되기는 ‘열사’라는 상징에 자신을 ‘동일시’¹⁷함을 뜻한다. 그러한 동일시는 주체의 자기 소외를 낳는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¹⁸ 천정환은 앞서 언급한 분신자살의 논리에 “능동과 피동은 모순적으로 결합”¹⁹되어 있음을 지적했다. 독재 정권에 대항하여 투쟁했던 정치적 주체들은 “거룩한 진리와 정의를 상징하는 죽은 자들의 세계와, 나약하고 비겁하게 일상에 안주하는 산 자들의 세계 사이에 끼어 있는 분열된 존재”²⁰였다. 즉, ‘살아남은 자의 슬픔’을 담고 살아있던 그들 개인에게 ‘열사-되기’를 일상에서 실행하는 것은 ‘불가능한 과제’²¹였다.

16 김명희(2002), 「5·18 자살의 계보학: 치유되지 않은 5월」, 『경제와 사회』 126호, 비판사회학회, p. 92.

17 “이처럼 노동열사의 영웅화는 열사가 생명을 노동운동과 노동해방에 바쳤다는 관념을 대중들이 공유함으로써 열사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겠다는 집단적인 각성을 위한 서사였다. 동시에 열사에게 영웅으로서 권위를 부여하는 ‘재신성화’이기도 했다.” [김원(2015), 「전태일 분신과 80년대 ‘노동열사’ 탄생의 서사들」, 『민족문화사연구』 59, 민족문화사연구소, pp. 127-128] 또한 이 글에서 별다른 표기가 없는 경우 굵은 글씨는 인용자의 것임을 밝힌다.

18 “학생, 노동 열사들, 광주에서 희생되었던 시민군, 기득권을 포기하고 노동 현장으로 투신한 운동가들의 ‘행위’는 모방되거나, 추종되거나, 추앙되어야 하는 ‘전형’의 의미를 띠게 되며, 주체는 이 전형이 행사하는 도덕적 압력 속에서 자신의 행위를 진정성을 향해 정향(定向)할 수 있는 규범적 나침반을 발견하는 것이다. 주체의 영광은 그 전범과의 유사함에서 오며, 주체의 오욕은 그 모범적 행위로부터의 유리(遊離)에서 발생한다.” [김홍중(2009), 「진정성의 기원과 구조」, 『마음의 사회학』, 문학동네, p. 34]

19 천정환(2021), p. 45.

20 김정환(2014), 「1980년대 운동사회의 감성-애도의 정치와 멜랑콜리 주체」, 『한국학연구』 33집,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p. 95.

21 (1) “1980년대 운동사회의 정치주체들은 사회적 애도가 불가능한 정치적 조건에서 독재 체제에 저항하다 죽어간 자들의 뜻을 받들어 정의와 진리의 길을 추구하려 분투하면서, 편리한 일상생활에 젖어 민중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지 못한다고 여겨지는 순간마다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자책하고 비판했고, 때로는 스스로 죽음을 선택함으로써 죽어간 자들을 뒤따르기도 했다.” [김정환(2014), p. 97] (2) 이남희에 의하면, 운동권 문화에서는 “자명한(당위적인) 역사적 의무 앞에서 개인적 야망과 행복의 추구를 버릴 것”과, 그리고 “특정 계급의 일원으로서 누리거나 누릴 수 있는 기득권을 포기”할 것이 요구되었다

앞서 인용했던 김지하의 글로 돌아가 보자. 그의 교조적인 언술들 사이에 있는 “당신들 자신의 생명은 그렇게도 가벼운가? 한 개인의 생명은 정권보다도 더 크다”라는 부분에 주목하고,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할 수 있다. 1991년 5월 분신정국에서 정치적 주체들은 김지하가 제기한 이 질문에 응답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었을까?²² 이 ‘불가능성’은 ‘열사의 정치학’과 관련된 최근 연구에서 다음과 같이 논구되었다. 먼저, 김홍중은 “도덕적 진정성”이 “80년대 이후의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형성되어 소위 386세대의 세대의식의 핵심을 구성”했는데, 이러한 “80년대적 진정성”은 “개인의 충분한 성찰에 근거한 사회운동이라기보다는 역사적 책무나 책임의식이 선행하면서 개인들을 도덕적으로 동원하는 양상”²³으로 나타났음을 논했다. 김원은 “80년대 노동열사의 탄생을 통해 새로운 정치공동체를 구성하고자 했던 인식과 실천에 내재하는 ‘논리적 궁지’(아포리, aporie)를 외면”²⁴하지 않아야 함을 강조했다. 김정환은 ‘열사의 정치학’이 지배했던 80년대에는 열사를 애도하는 일이 불가능했음을 논의하고, 그러한 80년대적 주체를 ‘멜랑콜리 주체’로 규정²⁵하며, 이제는 “죽은 자에 대한 사회

[이남희(2015), 유리·이경희 역, 『민중 만들기: 한국의 민주화운동과 재현의 정치학』, 후마니타스, p. 25].

22 “K는 김지하나 박홍이 옳은 것은 아니었지만 자신 또한 다른 맥락에서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했으나, 그것이 무엇인지 말할 수 있는 언어나 인식을 갖지 못했었다고, 사실 연일 들려오는 죽음의 소식에 겁이 나서 학교에 가는 것이 두려웠다고 했다. 그해[1991년 - 인용자 주] 5월 총학생회에서 일했던 K는 나와 20년 지기였지만 이런 말을 서로 나누는 것은 처음이었다.”[천정환(2021), p. 22]

23 김홍중(2009), p. 38.

24 김원(2015), pp. 139-140.

25 “멜랑콜리 주체라는 개념은 1980년대 정치 주체들이 정신분석학적 병리적 상태에 빠져 있었다고 주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죽은 자를 대하는 관점과 태도에 내재된 어떤 끈경을 보여준다. 멜랑콜리 주체는 1980년대 애도를 금지하는 지배적 감각 체제에 대항하여 죽은 자들을 위해 노래하고 그들이 남긴 정신을 뒤쫓고자 했다. 그것은 한편으로 애도의 일부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역설적으로 죽은 자들을 떼어내고 망각하는 애도 작업에 반(反)하는 일이기도 했다. 5·18 항쟁에서 학살당한 사람들과 독재 체제에 저항하며

적 애도와 더불어 타자와 마주하고 관계하는 양식을 전환”하는 “애도의 정치”²⁶를 수행해야 함을 주장했다. 천정환은 80년대 반(反)정부 정치 담론에서 표상으로서의 ‘열사’가 형성되는 과정을 분석하고, 그간 묵과되었던 열사(들)의 죽음에 대해 새롭게 성찰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²⁷ 그러한 논의들에 동의하며, 이 글은 김지하의 생명사상으로의 전회가 앞서 살았던 ‘열사-되기’라는 주체화 과정에 내장된 난제(aporia)에 대한 그의 태도의 전환으로 이해하고자 한다.²⁸ 이것이 시 텍스트에 재현된 그러한 전환의 내적 논리에 주목하는 이 글의 첫 번째 문제의식이다. 중요한 것은 이 문제의식이 아래의 인용문들과도 유관하다는 점이다.

죽어간 열사들을 애도해야 하지만, 동시에 그들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존재였던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보자면, 1980년대 운동사회의 ‘열사문화’에서 애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위였다.”[김정환(2014), pp. 97-98]

26 김정환(2014), p. 100.

27 “당시의 ‘우리-그들’인 20대 운동가들은 연발하고 빈발하는 젊은 죽음(들)의 의미에 대해서, 또는 그 ‘열사’들의 삶에 대해서 오히려 진지한 성찰이 부족했던 것은 아닌가? 죽음에 대해 무지했던 것 아닌가?”[천정환(2021), pp. 106-107]

28 그와 더불어, 이 글의 첫 번째 문제의식은 다음을 추가적으로 고려하며 형성된 것이다.
 (1) 김지하가 민중·민족문학을 대표하는 문인 중 한 명임은 유명하다. 그가 전개한 민족문학의 특징은 다음 논의에서 밝힌 것과 상당히 유사하다. “종교화된 민족주의가, 1980년대에 분신한 학생들이 자신을 ‘전사’나 ‘순교자’와 동일시할 수 있게 했다는 것이며, 박승희의 사고도 그러한 양상의 하나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이다.”[천정환(2021), p. 98]
 (2) 비전향 장기수들의 감옥에서의 삶을 꿰뚫히게 그린 김하기의 「살아 있는 무덤」의 다음 내용을 참고했을 때, 정권에 대항하다 정치적 타살로서의 자살을 선택하는 내적 논리에는 공통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되풀이하면, 그것은 죽음을 매개로 역사의 영웅인 열사에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이다. “그는[박선생 - 인용자 주] 사형 집행을 기다리면서 죽음에 대해 독창적이고 전일적인 미학체계를 완성시켰다고 생각했다./‘인생은 미완성이다. 그러나 미완성인 인생은 죽음에 의해서 비로소 완성된다. 불완전한 생을 죽음이 완성한다는 것은, 고립되고 추상화된 한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사회적 연대를 가진 구체적 인간의 계승적 죽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죽음이야말로 유적 인간의 부활행위이며 사회적 계승을 위한 적극적 실천 행위이다.”[김하기(2006), 「살아 있는 무덤」, 최원식 외 엮음, 『20세기 한국소설 45』, 창비, p. 235]

(1) 죽음과의 대면! 죽음과의 싸움! 그것을 이겨 투사의 내적 자유에 돌아
가느냐, 아니면 굴복하여 수치에 덮여 덧없이 스러져가느냐? 1974년 한마디
로 죽음이었고, 우리들 사건 전체의 이름은 이 죽음과의 싸움이였다.²⁹

(2) 사형을 구형받자마자 “영광입니다”가 도대체 무슨 말인가? 나는 엄
청난 충격 속에 휘말리기 시작했다. (...) 죽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죽음을 이
겼고, 죽음을 스스로 선택함으로써, 우리들 이 집단의 영생을 얻은 것이다.
(...) 종교적인 천상의 예감이었다. 아니 종교적인 것만도 아니다. 예술적인
감동의 극치이기도 하였다. 그렇다. 그 순간은 무어라고 차마 이름 붙일 수
조차 없는, 모든 인간적인 가치와 모든 고상한 것들이 통일되는 빛나는 절
정이었다. 나는 그때 어떤 이상한 영감에 접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일어났
다. (...) 나는 드디어 것처럼 오랜 세월 나를 괴롭혀온 나의 민중적 행동, 정치
행동과 예술적 창조 사이의 저 미칠 것만 같은 간극을 일시에 극복해 버리고
만 것이다. 숙제 해결의 결정적 해답을 선사받은 것이다.³⁰

위의 인용문 (1)과 (2)는 김지하가 1974년 『동아일보』에 발표한 「고행
1974……」에서 가져온 것이다. 인용문 (1)에는 앞서 언급한 ‘열사-되기’에
대하여 70년대 김지하 역시 고뇌했음이 드러난다. 그는 그것을 “투사”의
“죽음과의 싸움”으로 접수했다. 그런데 인용문 (2)에서 그가 이와 관련하여
“숙제 해결의 결정적 해답”을 얻게 된 상황이 나타난다. 흥미롭게도, 김지
하가 답을 얻었던 “영광입니다!”라는 발언은 김병곤의 것이다. 앞에서 방현
석이 김지하를 규탄하며 ‘김병곤과 김근태’를 자신의 “선배”로 맞세웠음을
언급했다. 김병곤은 1974년 당시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의 주요
인물 중 하나로 당시 법정에서 사형을 선고받고³¹ “검찰관님, 재판관님, 영

29 김지하(2002c), 「고행 1974……」, 『김지하 전집 3』, 실천문화사, p. 571.

30 김지하(2002c), pp. 575-577.

31 관련 내용은 김현서(2017), 『김병곤 평전』, 실천문화, pp. 193-213.

광입니다. 사실 저는 유신 치하에서 생명을 잃고 삶의 길을 빼앗긴 민중들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어 걱정하던 차에 이 젊은 목숨을 기꺼이 바칠 기회를 주시니 고마운 마음 이를 데 없습니다”³²라고 말했다. 김병곤의 이러한 언술은 앞서 살폈던 ‘열사’ 표상에 정확히 부합한다. 그렇다면, 당시 김지하는 김병곤과 마찬가지로 죽음(정치적 타살로서의 자살)으로써 열사 되기를 결단했던 것은 아닐까? 인용문 (2)에서 그러한 결단은 “그 순간은 무어라고 차마 이름 붙일 수조차 없는, 모든 인간적인 가치와 모든 고상한 것들이 통일되는 빛나는 절정”에 대한 예감으로 진술되었다.

하지만 그것은 다음과 같이 반복된다.

(1) 따라서 이런 것들은 변혁을 지향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패배를 거듭하는 민중의 역사는 바로 민중 자신의 운명인 죽음과의 관계를 내 주체로 만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라인을 따라서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 그런데 바로 이 같은 생명과 죽음의 문제가 나중에 저에게는 몹시도 지친 상태에서 굉장한 피로감과 절망으로 변합니다. 그러나 그 절망 속에서 내 스스로 죽음으로서라도 민중의 소망이 달성될 수 있는 그런 길을 가야 한다는 고집이랄까 결단, 이런 것들이 나를 지배합니다. 읽으시면 금방 아실 수 있죠. 그러나 지금 생각할 때 이것이 너무 지나쳤습니다. 확실히 나는 감옥에 오래 있었고, 정치 투쟁에 너무 깊이 들어갔습니다.³³

(2) 그때가 봄이었다. 어느 아침 나절 창틀(옛 일제 때 감옥이라 창틀 사이에 우리가 없다) 사이로 흰 민들레씨가 가득히 날아들어와 아침 햇살에 눈부신 흰빛으로 빛나며 하늘하늘 날고 있었다. 아름다웠다. 갑자기 울음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까닭을 알 수 없는 울음을 몇 시간이고 숨죽여 울고 있는

32 김현서(2017), p. 214.

33 김지하(2003a), 「꽃과 그늘, 그곳에 이르는 길」, 『김지하의 화두』, 도서출판 화남, pp. 185-186.

동안 허공에서는 ‘생명, 생명, 생명’ 소리가 계속 메아리쳤다. 그와 함께 한 깨달음이 왔다. ‘아! 생명은 없는 곳이 없다. 감옥 밖에도 안에도 생명은 있다. 민들레 씨보다 더 고등생명인 내가 이 생명의 비밀만 깨닫는다면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동시에 감옥 밖에서 내 아들과 내 아내와 내 친구들과 함께 있을 수 있다. 생명의 비밀을 깨닫자!’³⁴

인용문 (1)은 2002년 김지하가 발표한 「꽃과 그늘, 그곳에 이르는 길」의 일부분이다. 위에 나타난 것과 같이, 그는 김병곤의 “영광입니다”를 듣고 ‘죽음’으로써 “집단의 영생”을 얻을 것, 즉 ‘열사 되기’를 결단했던 지난 날의 자기 자신을 “그러나 지금 생각할 때 이것이 너무 지나쳤습니다”라고 말하며 부정했다. 왜 그러한가? 그는 ‘감옥’이라는 현실³⁵을 ‘열사’라는 이상으로써 초월할 수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김지하는 “군사법정은 나에게 사형을 선고하였고, 나의 시는 이미 언어의 사활선을 넘어 네모난 시멘트의 독방 속으로 유배되었다. 나치스에 저항한 어떤 시인은 자기의 언어에게 총알이 되라고 주문했다고 한다. 그러나 내 체험으로는 독방의 사활선을 넘은 언어는 총알은커녕 쉽게 녹슬고 모(角)가 나고 그리고 부패한다”³⁶라고 진술한 바 있다. 즉, 그는 감옥에서 자신의 “언어”(詩)가 열사의 언어인 “총알”과 어긋남을 깨달은 것이다.

34 김지하(2009), 「나의 시, 70년대 어둠으로부터의 비전」, 『소근소근 김지하의 세상 이야기 인생 이야기 4』, 이룸, p. 269.

35 김지하는 ‘생명’에 대해 깨닫기 전 다음과 같은 극도의 고통을 겪었음을 밝혔다. “1975년 초 재구속되어 4년이 되도록 그 엄혹한 특수 격리 상태에서도 매일 메시안 픽 낙천적으로 살았다. 그런데 4년이 지나면서부터 밤에 자리에 누우면 천장이 내려오고 벽이 다가 들어오면서 가슴이 답답하고 소리지르고 싶어 못 견디는 상태가 계속되었다. 소리를 친다면 좋아할 사람은 박정희와 정보부뿐. 소리를 막으려고 손가락도 무던히도 깨달았다. 그러니까 벽면증 같은 것인데 하여튼 위기를 느꼈다. 이런 상태에서는 장기적으로 못 버틴다. 못 버티면 참혹한 패배가 있을 뿐!” [김지하(1991a), 「타는 목마름에서 생명의 바다로」, 『타는 목마름에서 생명의 바다로』, 동광출판사, p. 15]

36 김지하(2009), p. 267.

하지만 인용문 (2)에서는 김지하가 ‘초월’의 자원을 ‘열사로서의 죽음 → 생명’으로 전환하는 과정이 드러난다. “감옥 밖에도 안에도 생명은 있다”라는 언술은 ‘생명’만이 감옥을 초월할 수 있다는 인식을 나타낸다. 그는 그러한 과정을 종교적 계시와 다름없는 극적인 사건으로 진술했다. 이러한 진술은 앞에서 살펴본 김병곤의 말을 듣고 깨달음을 얻은 것과 유사하다. 그는 두 체험 모두 ‘계시’를 듣고 논리를 초월하는 직관적 깨달음을 얻은 순간으로 묘사한다. 법정에서는 “영광입니다”(계시)를 듣고 “어떤 이상한 영감에 접하고 있는 듯한 느낌”(깨달음)이 들었으며, 감옥에서는 민들레꽃을 본 후 메아리처럼 “‘생명, 생명, 생명’ 소리가 울리는 소리(계시)를 들으며 깨달음을 얻었다. 그런데 이러한 직관적 깨달음에 대해서 쫓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그가 ‘시인’이어서 그렇다는 범박한 추정은 그의 사상과 텍스트에 내재된 모순을 간과케 한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어째서 그는 난제에 대한 ‘해답’을 논리적 사고의 결과가 아닌 ‘계시’로서 얻게 된 것일까?

이를 논의하기 위해서, 먼저 김지하에게 주어진 문제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그도 ‘열사-되기’에 내장된 난제를 고뇌했음을 앞에서 살폈다. 그러한 고뇌는 앞에서 독해한 「고행 1974……」에서 “정치 행동과 예술적 창조 사이의 미칠 것만 같은 간극”으로 발화된다. 뒤이어 살핀 「꽃과 그늘, 그곳에 이르는 길」에서 그가 과거의 자신을 부정하며 “확실히 나는 감옥에 오래 있었고, 정치 투쟁에 너무 깊이 들어갔습니다”라고 말한 까닭은 여기에 있다. 그러한 ‘간극’은 그도 앞에서 살핀 정치적 주체들과 마찬가지로 ‘분열’³⁷되었음을 나타낸다. 그러한 분열은 정치적 주체로서의 개인과 역사적 영웅인 열사라는 관념 사이의 ‘불일치’를 의미한다. 즉, 개인은 이상적 자아

37 그러한 ‘간극’은 다음 서술에서 나타나는 것보다 다르지 않다. “다정다감하고 섬세한 소녀인 ‘그녀’. 그리고 “2만 학우 한 명 한 명에게 반미의식을 심어주고 정권타도와 함께 힘썼으면 하는 마음에 과감히” 제 목숨까지 버리는, 세속적인 삶에 안주하려는 타인의 ‘자유’마저 규제하려 한 민족해방 전사 사이에는 그 어떤 간극 또는 매개가 있는 것일까?”[천정환(2021), p. 105]

(열사)에 비동일적 존재이다.

그러므로 김지하가 이러한 ‘주체와 이상적 자아 사이의 간극’이라는 문제에 두 번 모두 ‘계시’로서 답했음은 다음 두 가지를 의미한다. (1) 주체가 현실에서 실천으로써 ‘열사’라는 이상적 자아에 자기를 일치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2) 그러한 일치 불가능함을 의식적 차원에서 인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2)의 ‘인식 불가능성’에 대해서는 김지하가 감옥에서 경험한 형언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체험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질문을 (조심스럽게) 던질 수 있다. 그는 감옥에서 “4년이 지나면서부터 밤에 자리에 누우면 천장이 내려오고 벽이 다가들어오면서 가슴이 답답하고 소리지르고 싶어 못 견디는 상태가 계속되었다”³⁸라고 말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감옥에서 그가 투사라는 자기 인식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경험했음을 추정할 수 있다. 바꿔 말하면, 그는 ‘이상적 자아(열사)에 대한 동일시’라는 시대의 명령이 자신에 대한 폭력이기도 함을 감지할 수 있었던 셈이다. 또한 그러한 동일시를 욕망했던 자신을 해체함으로써 ‘열사의 정치학’에 내장된 ‘모순’을 비판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³⁹ 즉, 그는 ‘열사’라는 관념에 개인은 무한히 어긋날 수밖에 없음을 인식하고, 그러한 관념이 주체 정립 과정에 초자아로 작동했던 사정을 입체적으로 성찰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종합하면, 그는 “애도에 대한 애도”⁴⁰를 수행함으로써 ‘열사’라는 틀로

38 김지하(1991a), p. 15.

39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였다. “그리고 그 모습을 밝히는 일은 스스로 의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자신에 대한 해체를 행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 해체가 의미 있게 수행될 때, 그것은 자신에 대한 변화를 낳게 될 것이다. 내가 앞의 주에서 암시한 것처럼, 그것은 자기동일성에 대한 열망을 이타성에 대한 인정과 이타화로의 움직임으로 변화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정과리(2015), 「민중문학론의 인식구조」, 김형중 외 엮음, 『한국문학의 가능성: 문지의 논리 1975~2015』, 문학과학성사, pp. 248-249]

40 “우리 안에 그 시선을 품고, 우리의 매 순간의 행동 하나하나마다 그 시선을 지니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애도를 수행함으로써만, 우리 자신에 대해 우리 자신의 애도를 수행함으로써만-내 말은 우리의 자율성의 애도, 우리 자신을 우리 자신에 대한 척도로 만드는 모든 것에 대한 애도라는 뜻이다.”[Jacques Derrida (2003), “À force de deuil”, *Chaque*

포획될 수 없으면서도 세계 변혁을 수행하는 새로운 주체로 거듭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김지하는 주체와 이상적 자아 사이의 절대적 동일시를 ‘강화’하는 생명사상을 제출한다.⁴¹ 정신분석의 여러 논자들이 풀이했듯이, 그러한 강화는 과잉을 표지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그의 전회는 김지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열사의 정치학에 내재된 ‘증상’(symptom)을 드러내는 것은 아닐까? 이것이 이 글의 두 번째 문제의식이다.

지금까지 서술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글은 김지하의 생명사상으로의 전회에 대해 현상학적 판단 중지를 하고, 주체화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애린 1·2』(실천문학사, 1986)에 대한 징후적 독해를 수행할 것이다. 『애린』 연작이 생명 사상으로의 전회가 재현된 텍스트⁴²임은 널리 알려져 있다. 또한 그러한 이 글의 작업에 정신분석학적 관점으로 ‘전환’(conversion)을 조명한 데리다의 사유는 유효한 통찰을 제공한다. 데리다에 의하면, 전환에서는 심층적으로 ‘억압’(repression)과 ‘합체’(incorporation)⁴³가 발생한다.

『애린』 연작은 연구사에서 김지하의 생명 사상을 중심으로 논구되었다. 그간 선행 연구에서는 『애린』 연작과 생명 사상 간의 상관관계가 입증되었으나, 시인의 사상이 핵심 참조항으로 기능함으로써 시 텍스트에 드러난 균열

fois unique, la fin du monde, Paris: Galilée, p. 200을 진태원(2019), 「‘포스트’ 담론의 유행들: 애도의 애도를 위하여」, 『애도의 애도를 위하여: 비판 없는 시대의 철학』, 그린비, p. 72에서 재인용함. 굵은 글씨는 원문의 것이다.]

- 41 앞당겨 언급하면, 백낙청의 ‘민족’ 개념에 대한 정과리의 다음과 같은 비판은 김지하의 생명론에도 적용될 수 있다. “이러한 역사성의 비역사화는 자기 동일성에 대한 열망을 자기 동일성에 대한 집착으로 바꾼다. 그것은 자기동일성의 회복을 영원히 불변의 것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불변의 것은 그가 그것을 물어야 한다고 했을 때조차, 확신으로 제기되고, 물음은 탐구가 아니라 확인으로 전개된다. 그것은 한편으로 자의적으로 개별화한 이념을 절대화시키고 그것에 의해 모든 현상을 파악하고, 다른 한편으로 그 이념에 삶과 피를 주어 특수화·특권화시킨다.”[정과리(2015), p. 243]
- 42 “그날 박정희씨가 죽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의 운명은 또 전환합니다만 이 전환기에 중요한 것이 바로 ‘애린’이라는 말입니다.”[김지하(2003a), p. 189]
- 43 자세한 내용은 Jacques Derrida (2008), *The Gift of Death & Literature in Secret*, trans. David Wills, The U of Chicago, p. 11 참고.

이 주목되지 않아 입체적인 독해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아쉽다.⁴⁴ 뿐만 아니라, 『애린』 연작에서 불교의 「십우도」(十牛圖, 犇牛圖)가 차용됨에 주목⁴⁵하여 상호텍스트적 독해를 수행한 연구도 제출되었다. 그러한 선행 연구에서는 ‘시적 주체의 애린 찾기’가 진리 추구하고 연관함을 밝혔다.⁴⁶ 그러나 「십우도」에서 중요한 것은 ‘소’가 상징하는 진리를 찾는 것만이 아니라, 그렇게 소를 찾은 목동이 ‘보살’이 되어 귀환하여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다.^{47, 48} 하지만 선

-
- 44 (1) 초기 연구 중 하나인 김주연의 「현실, 시 그리고 초월」에서 『애린』은 시인이 1970년대에 생산한 시 텍스트를 묶은 시집 『황토』의 “신비주의적, 소위 인간주의적 색채”를 넘어서서 “모든 것의 극복은 결국 초월성에 이르는 길과 통하지 않을 수 없음이 강하게 암시”된 텍스트로 논의되었다[김주연(1986), 「현실, 시 그리고 초월」, 『외국문학』 8, 열음사, p. 407]. (2) 류지연은 ‘애린’이 “영원한 생명의 근원”로 표상됨을 논했다[류지연(2001), 「김지하의 생명의식과 『애린』」, 『한국문예비평연구』 9, 한국현대문학비평학회, p. 66]. (3) 최옥선은 ‘애린’은 “근원적인 생명 그 자체”[최옥선(2016), 「김지하의 시에 나타난 생명사상과 글쓰기 방식: 『애린』을 중심으로」, 『동학학보』 40, 동학학회, p. 250]이며, 시적 주체의 애린 찾기 과정은 “민중에게 쌓인 한(恨)을 찾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과정”임을 논의했다[최옥선(2016), p. 270].
- 45 주지하듯이, 『애린』 연작의 주요 서사는 시적 주체가 ‘애린’을 찾아 나서는 여정이다. 그리고 「십우도」는 목동이 소를 찾으며 진리를 깨달아 보살로 거듭나는 주제화 과정을 도해한 것이다.
- 46 (1) 정연정은 생명사상의 핵심으로 알려진 ‘모심’이 “불교생태학의 상호존중성인 자비심에 입각한 실천적 윤리”[정연정(2011), 「김지하의 ‘애린’과 ‘모심’의 시학: 불교 생태론적 관점을 중심으로」, 『문학과 환경』 10(1), 문학과환경학회, p. 165]이고, ‘애린’이 “상실과 절망 속에서 태어난 김지하의 인식의 꽃”[정연정(2011), p. 156]이자 “생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멸하는 것에 대한 연민의 시선”[정연정(2011), p. 157]을 나타냄을 논했다. (2) 김인옥은 『애린』이 “모든 것이 보편적인 생명의 개체를 현현한 것이 바로 ‘참된 나’의 생명이라는 것, 진실로 생명은 하나라는 깨달음”[김인옥(2012a), 「김지하 시 『애린』에 나타난 ‘십우도’의 상징과 변용」, 『한국문예비평연구』 37, 한국문예비평학회, p. 55]을 재현한 텍스트임을 논의했다.
- 47 이와 관련하여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서주석·백원기(2015), 「치유와 구도의 시학으로서 『십우도』」, 『한국사상과 문화』, 한국사상문화학회; 원혜영(2015), 「십우도와 고통의 페러다임」, 『한국교수불자연합학회지』 21(3), 사단법인 한국교수불자연합회; 신명희(2018), 「십우도와 목우도의 비교 고찰」, 『동아시아불교문화』 34,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 신지하(2019), 「십우도(犇牛圖)의 일원상(一圓相): 추상성(抽象性)과 메타포(Metaphor)로서의 일원상(一圓相)」, 『동아시아불교문화』 40,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
- 48 「십우도」의 목동은 다음 열 가지 과정을 경험한다. 참고로 이 과정은 『애린』 연작에서 시

행 연구에서는 『애린』 연작과 「십우도」의 교집합이 주체화 과정임은 주목되지 않았다.

종합하면, 그간 연구사에서 『애린』 연작은 시적 주체가 절대적 진리인 생명을 찾아 나가는 텍스트로 논의되었다. 김지하가 생명을 모든 것의 ‘근원’으로 규정했음은 앞에서 밝혔다. 『애린』 연작에 재현된 근원(생명)을 향한 운동은 “신생에 대한 충동”⁴⁹에 의해 추동된다. 신생에 대한 충동은 시원(始原)으로 회귀함으로써 새로운 주체 되기를 추동한다.⁵⁰ 새로운 주체 되기는 『애린』 연작에서 ‘애린과의 만남’으로 표상된다. 하지만 시 텍스트를 분석해 보면, 시적 화자와 애린과의 만남 불가능성이 도출된다. 앞으로 이 글에서는 그러한 균열을 내장한 『애린』 연작이 ‘열사에 대한 애도 불가능성’을 반영한 하나의 사례로서 이해될 수 있음을 규명할 것이다.

2. 유령으로서의 ‘애린’의 부활 불가능성

김지하는 시집 『애린』의 〈서문〉에서 “죽고 새롭게 태어남을 애린이

의 제목으로 활용된 바 있다. (1) 소를 찾아 나서다(尋牛), (2) 자취를 보다(見跡), (3) 소를 보다(見牛), (4) 소를 얻다(得牛), (5) 소를 기르다(牧牛), (6) 소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다(騎牛歸家), (7) 소는 잊지만 사람은 존재한다(忘牛存人), (8) 사람과 소를 모두 잊다(人牛俱忘), (9) 근원으로 돌아가다(返本還源), (10) 저자에 들어가서 손을 드리우다(入塵垂手) 또한 이러한 과정을 경험함으로써 목동은 “‘참된 자기를 추구한다’, ‘죽음을 해결한다’, ‘타자를 구제한다’”라는 세 가지 목적[요코하마 고이츠(2001), 장순용 역, 『십우도·마침내 나를 잊다』, 들녘, p. 321]을 달성하고자 한다.

49 정과리(2016), 「신생의 사건으로서의 시」, 『뫼비우스의 분면을 떠도는 한국문학을 위한 안내서』, 문학과지성사, p. 308.

50 “신생은 나의 회복인 것입니다. 즉, 신생에 대한 충동은 자신의 진면목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욕망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동일성으로의 회귀,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자신의 진짜 모습(true identity)의 세움이라는 뜻이 될 것입니다.”[정과리(2016), p. 308]

라 부른다”⁵¹라고 밝혔다. 또한 선행 연구에서도 애린을 삶과 죽음의 ‘순환’으로서의 부활과 유관한 것으로 풀이했다.⁵² 하지만 『애린』 연작에서 애린은 삶과 죽음 사이의 ‘간극’에 존재하는 ‘유령’으로 재현된다. “으스스한 것”(the eerie)인 ‘유령’은 “부재의 오류 혹은 존재의 오류”⁵³를 표지한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유령은 ‘오류’를 바로잡고자 하는 시적 주체의 욕망이 투영된 것이다.

얼굴 같같이 찢어지고/사지 잘려 몸통만 남은/몸통에 부러진 총창 함께 대
검 박힌 몸통만/비 내리는 캄캄한 거리/발자국 소리 총소리 비명 소리/겹
쳐 겹치며 내 앞애/허공에 와/우뚝 서는 너/이름이 뭐니//사무쳤구나/설움
애, 훑고 고달픈 눈빛/물 끓는 연탄난로 뚜껑 제치고/타는 불꽃 속으로 사
라져가는/트는 먼동 속으로 사라져가는/붉은 눈빛/뒤편 나직이 숨가쁘게
속삭이는/푸른 입술/너/이름이 뭐니//잠 깨어 우두커니 치어다보는 허공/
허공에 아직도 남아 떠도는/가슴에 아프게 불로 지저놓은/너/애린/낯설디
낯선/너/애린의 이름

- 「꿈에」⁵⁴

-
- 51 김지하(1993), 「『애린』 간행에 붙여」, 『김지하 시집』 1, 솔출판사, p. 318.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 내용을 상술하면 다음과 같다. “애린의 실제 인물이 누구냐고 묻는 사람이 많은데 참으로 우스운 일이다. 만해더러 님이 누구냐고, 어떤 여자냐고 묻는 바보 짓처럼./ 구태여 그리움이니 목마름이니 잃어버린 민주주의니, 분단된 조국 따위 뱀발을 붙여 선 부른 설명을 가할 필요가 무엇 있으랴. 구태여 말하라면 모든 죽어간 것, 그 모든 것에 대한 진혼곡이라고나 할까. (...) 그리고 그것은 매순간 죽어가며 매순간 태어나는 것을.”[김지하(1993), p. 317]
- 52 “좀 더 구체적으로는 <나는 그 죽고 새롭게 태어남을 애린이라고 부른다>고 밝히기도 했다./이렇듯 그의 생명 의식은 그리고 <애린>은 생명이 있는 모든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죽음 또한 다시금 태어남으로 부활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보이지 않는 생명력으로 생각하여 끊임없이 돌고 도는 순환의 연결고리로 형상화하고 있음을 발견” 할 수 있다[류지연(2001), p. 60].
- 53 마크 피셔(2019), 안현주 옮김, 『기이한 것과 으스스한 것』, 구필, p. 96.
- 54 김지하(1993), 「꿈에」, 『김지하 시집』 1, 솔출판사, pp. 267-268. 앞으로 이 글에서 인용

화자는 꿈에서 “발자국 소리 총소리 비명 소리”로 얼룩진 광경을 목도한다. 그러한 역사적 비극의 현장에서 사람들은 참혹하게 죽임을 당했다. 그것은 “몸통에 부러진 총창 함께 대검 박힌 몸통”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화자의 눈앞에 “우뚝 서는 너”는 그들 중 한 명으로서 이미 죽은 자(死者)이다. 흥미롭게도, 역사적 폭력의 희생자로서 참혹하게 죽어간 “너”는 김지하가 1970년대에 발표한 『황토』에서 시적 주체가 ‘매장’을 수행했던 대상과 상당히 유사⁵⁵하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 「매장」을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너는 그것을 원했다 황량한 옥금리 들녘/황토로 변하기를 너는 원했다/
 별에 타고 거친 바람에 시달려/끝끝내 빛나기를, 끝끝내 흔들기를/성장의
 밑바닥에 타오르기를/죽음 속에서도 붉게 타는 뜬 눈의/치열한 핏발 내 가
 슴속에 쟁쟁히 울리는/그 굵은 목소리 아직도 더운 흉가슴에/살아있는 너/
 살아 있는 반역의 이 불발에 운명에/삼질을 한다 너를 묻기 위해/번개와
 폭풍의 밤에 통곡하며 통곡하며/나는 삼질을 한다

- 「매장」 부분

「매장」의 “너”는 앞에서 살핀 「꿈에」의 “너”와 마찬가지로 역사적 폭력에 짓밟혀 죽어간 희생자로서 유령⁵⁶으로 재현된다. 「매장」과 「꿈에」의 화자는 모두 그러한 “너”를 상기하며 고통을 감각한다. 그러나 두 시의 화자가 “너”와 맺고자 하는 관계의 양상은 다르다. 먼저, 「매장」의 시적 주체

하는 시는 김지하(1993)에서 가져온 것으로 서지사황을 표기하지 않음을 부기해 둔다.

55 김지하가 시집 『황토』(한얼문고, 1970) 후기에서 시인으로서의 자신을 ‘원귀들이 품은 한(恨)의 전달자’로 명명했음은 널리 알려져 있다. 『황토』의 유령 표상과 「매장」에 대해서는 최서윤(2020a), 「시인의 ‘지계꾼’ 되기는 가능한가?: 김지하의 1970년대 문학사적 난제에 대한 일 고찰」, 『현대문학의 연구』 70, 한국문학연구학회, pp. 344-351 참조.

56 본문에서 인용하지는 않은 「매장」의 구절에서 “너”는 삶과 죽음 중 어디에도 귀속되지 않는 존재인 “더없이 역센 뜬눈의 주검”으로 표상되었다.

는 현 세계의 오류를 바로잡기를 욕망한다. 「매장」의 시적 주체는 ‘매장’을 수행함으로써 “너”가 욕망했던 “황토”라는 새로운 세계의 건설 주체로 거듭나고자 한다.⁵⁷ 바꿔 말하면, 화자는 “죽음 속에서도 붉게 타는 뜬 눈의/치열한 핏발”과 “내 가슴속에 쟁쟁히 울리는/그 굵은 목소리”를 갖고 있는 “너”를 (재)매장함으로써 너의 “운명”을 자신의 과거로 전유하고 “살아 있는 반역”의 삶을 계승하고자 한다. 하지만 「꿈에」의 화자가 바로잡는 대상은 “너”이다. 그는 “너”에게 “이름이 뭐니”하고 반복해서 묻고, 그는 사라진 “너”의 흔적처럼 남은 이름인 “애린”을 “낫설디낫선” 것으로 생각한다. 여기에서 ‘이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름은 존재의 고유성과 수동성을 동시에 나타낸다.⁵⁸ 유령인 “너”는 생전에 그가 가졌던 관습의 산물로서의 이름과 분리될 존재⁵⁹이다. 따라서 「꿈에」의 화자가 “너”를 ‘애린’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호명함은 (a) 생전의 “너”의 삶에서 “너”를 분리해 내어, (b) 자신과의 관계를 매개로 “너”를 “애린”으로 재탄생시킴을 의미한다. 바꿔 말하면, 화자는 역사적 폭력에 짓밟힌 희생자인 “너”를 “애린”으로 변화시키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차이점은 두 시에서 “너”의 눈동자가 재현되는 방식이 다르다는 점과 유관하다. 「매장」에서 “너”의 눈동자는 “죽음 속에서도 붉게 타는 뜬 눈의/치열한 핏발”로 재현된다. 하지만 「꿈에」의 “너”의 눈동자는 “트는 먼동 속으로 사라져가는/붉은 눈빛”으로 나타난다. 앞에서 「매장」의 눈동자 이미지의 ‘핏발’이 참혹했던 역사적 비극을 증언함을 살폈다. 또한 이렇게

57 최서윤(2020a), pp. 350-351.

58 “그러나 이름은 결코 전적으로 고유하지도, 또 완벽하게 우리 자신의 것도 아니다. 우리의 이름은 (적절한 담화 행위의) 언어학적·법적 책략, 법률상의 규칙과 종교적 축복, 공적 의식 및 가족적 관습을 시행한 결과물이며, 이 모든 것들이 세례식에서의 이름 짓기를 관장하고 그 결과를 결정한다. 이름을 부여받은 자는 언어로 이루어진 산물이자 법과 관습의 구축물이다.”[코스타 두지나(2013), 「테리다의 추모사」, 슬라보예 지젝 외, 최용미 옮김, 『아듀 테리다』, 인간사랑, p. 17]

59 코스타 두지나(2013), p. 22.

‘타오르는’ 붉은 빛은 앞에서 언급한 전남대 박승희 학생의 유서에 언급된 “너희는 가슴에 불을 품고 싸워야 하리”라는 구절을 상기시킨다.⁶⁰ 그렇다면, 어째서 『꿈에』에서는 이러한 핏빛이 비가시화 되어 가는 것일까?⁶¹

나뭇잎 휩쓰는/바람 소리나 비나/전기는 가버리고/어둠 속으로 그애도 가
버리고/급세 세상이 온통 뒤집힐 듯/눈에 핏발 세우던 그애도 가버리고/춧
불/홀로 타는 촛불/내 마음 휩쓰는 것은/바람 소리나 비나

- 「촛불」⁶²

먼저, 화자가 ‘홀로’ 있음이 눈길을 끈다. 주목할 것은 화자가 그 까닭을 “눈에 핏발 세우던 그애”와의 이별로 밝혔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1980년대 김지하의 시 텍스트에서 “붉게 타는 뜯 눈”(『매장』)은 상실의 대상⁶³인가? 그런데 문제는 화자가 “그애”와의 이별을 서술한 부분에 뒤이어 “홀로

60 “‘불’과 ‘불꽃’ 표상은 전태일 이래 특히 분신한 ‘열사’들이 자주 공유해온 표상이다.”[천정환(2021), p. 95]

61 이러한 변화는 이승훈의 「흰 빛과 붉은 빛의 이미지」에서 “붉은 빛의 세계를 부정하고 흰 빛의 세계를 지향하는 태도”[이승훈(1989), 「흰 빛과 붉은 빛의 이미지」, 『작가세계』 1(3), 작가세계, p. 160]로 지적된 바 있다. “붉은 빛”은 “피”가 표상하는 세계이며, “흰 빛”은 “흔히 흰빛이 암시하는 순결이나 죽음 혹은 침묵이나 고요의 세계”[이승훈(1989), p. 154]를 표상한다. 또한 이승훈은 전환기의 텍스트에서 『애린』과 『검은 산 하얀 방』에서 “흰 빛의 세계와 붉은 빛의 세계는 거시적인 대립 혹은 긴장관계”[이승훈(1989), p. 161]로 나타난다고 풀이했다. 그러한 이승훈의 논의는 이 글에서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눈동자 이미지의 변화와 유관한 색채 이미지의 변화를 표면적으로 짚어낸 초기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그 의미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쉽다.

62 위에 인용된 「촛불」은 『애린』에 실린 시는 아니지만, 같은 해에 출판된 시집 『검은 산 하얀 방』(분도출판사, 1986)에 수록된 시이다. 「서문」에서 김지하가 이 시집이 “죽임의 언어를 쇠신시키고 새롭게 그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생명 체험의 충만에 소극적으로 이바지하게끔 만드는 전향의 변증법과 깊은 관련”[김지하(1993), p. 318]이 있다고 발언했다. 따라서 『애린』 연작과 마찬가지로 『검은 산 하얀 방』 역시 전환기의 텍스트로 볼 수 있다.

63 이와 관련하여 「촛불」과 함께 『검은 산 하얀 방』에 수록된 시 「백방·10」을 참고할 수 있다. “그날의 창도 버리고/그날의 핏발 선 눈도 버리고/오세요/뒤결 바람을 타고/웃음으로라도 오세요/머리 끝 흘날리는/바람으로라도”

타는 촛불” 이미지가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 “촛불” 이미지가 서사에서 수행하는 기능은 문면에서 드러나지 않는다. 즉, 촛불 이미지는 시의 서사에 비연속적인 것으로서 나타난다.

하지만 시적 이미지가 “표상하는 대신 은폐”⁶⁴함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홀로 타는 촛불”은 표면적으로는 방 안의 모습을 드러내지만, 시적 주체의 무의식적 욕망을 은폐한다. 먼저, 촛불은 햇불에 비해 여린 불이다. 또한 촛불 이미지는 “고독”⁶⁵과 “태워지는 것과 태우는 것의 변증법”⁶⁶ 그리고 “수직성”⁶⁷을 표상한다. 따라서 위의 시에 나타난 촛불은 죽음으로써 생을 초월하고자 하는 욕망을 재현한다.^{68, 69} 홍미롭게도, 김지하는 위에서 살핀 시 「촛불」을 결론에 인용한 산문 「촛불」(2003)에서 앞서 언급한 김병곤을 촛불에 비유했다. 그 글에서 그는 “사형을 선고하자 내 앞줄에 있던 김병곤, 지금은 고인이 된 그가 뺄어낸 한마디, ‘영광입니다.’/이 한마디가 나를 소용돌이에 빠뜨렸다. 내 눈앞엔 끊임없이 타다 타다가 사그러져 없어지는 촛불이 나타났다./그러나 그것은 영광이었다./자신을 불태워 세상을 밝히도

64 조강석(2019), 「시 이미지 연구방법론(2): 문학 이미지는 무엇을 욕망하는가?」, 『상허학보』 57, 상허학회, p. 140.

65 가스통 바슐라르(2017), 김병욱 옮김, 『촛불』, 마음의숲, 2017, p. 23.

66 가스통 바슐라르(2017), p. 39.

67 가스통 바슐라르(2017), p. 74.

68 관련 내용은 권성훈(2020a), 「김지하 시 세계의 비극성과 정의의식」, 『국제한인문학연구』 26, p. 111 참조.

69 이러한 촛불 이미지는 관습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박경수는 「일제강점기의 시에 나타난 촛불의 상상력과 의식지향성 연구」에서 식민지 시기의 시 텍스트에 나타난 촛불 표상을 일별하며, 그 양상을 7가지로 구분하였다. 그 중 윤동주와 신석정 등의 시에서 발견되는 “스스로 생명의 에너지를 태우는 자기희생의 화신이자 수직성의 정의를 구현하는 성스러운 존재이지만, 자기희생을 통해 정의를 실현하려는 의지는 작은 힘과 좁은 영역에만 미치는 한계 때문에 때로는 절망적인 현실의식을 보여주기도 하는 것”으로 풀이되는 촛불 표상은 김지하의 시에 나타난 촛불과도 겹친다. 관련 논의는 박경수(2018), 「일제강점기의 시에 나타난 촛불의 상상력과 의식지향성 연구」, 『한국민족문화』 66,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pp. 105-109 참조.

록 결정된 사람의 운명은 영광이었던 것이다”⁷⁰라고 말했다. 이러한 언술을 통해, 생명사상으로의 전회 이후에도 김지하가 열사가 표상하는 초월성은 부정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눈에 핏발 세우던 그애”와의 이별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꿔 말하면, ‘초월성’⁷¹을 표상하는 이 촛불 이미지는 무엇을 은폐하는 것일까? 그러한 촛불 이미지는 아래에 인용된 『애린』 연작의 서시에 나타난 “카바이트 불꽃”과 겹쳐진다.

우거진 풀 헤치며 아득히 찾아가니/물은 넓고 산은 멀어 갈수록 험하구나/
몸은 고달프고 마음은 지쳐도 찾을 길 없는데/저문 날 단풍숲에서 매미 울
음 들려오네

- 열 가지 소노래 첫째

네 얼굴이/애린/네 목소리가 생각 안 난다/어디 있느냐 지금 어디/기인 그
림자 끌며 노을진 낮선 도시/거리 거리 찾아 헤맨다/어디 있느냐 지금 어
디/감감한 지하실 시멘트벽에 피로 그린/네 미소가/애린/네 속삭임 소리
가 기억 안 난다/지쳐 엎드린 포장마차 좌판 위에/타오르는 카바이트 불꽃
홀로/가녀리게 애잔하게/가투 나선 젊은이들 노래 소리에 흔들린다.

- 「소를 찾아 나서다」 전문

먼저, 「열 가지 소노래 첫째」는 앞서 살핀 「십우도」에서 ‘십우’(尋牛)에 해당된다. 소를 잃었음은 ‘참된 자기(진리)’를 잃었음을 뜻한다.⁷² 강조할 것은 십우에서 전경화되는 것이 소 찾기의 ‘어려움’이라는 점이다. 그것은 “물은 넓고 산은 멀어 갈수록 험하구나”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목동은 소

70 김지하(2003a), p. 386.

71 참고로 김지하는 촛불을 “가장 경건하면서도 다소곳한 ‘모심’”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관련 내용은 김지하(2003a), p. 6 참조.

72 요코야마 고이츠(2001), p. 71.

를 찾는 일을 포기할 수도 있는 셈이다. 하지만 “매미 울음”에서 목동의 그러한 결정이 지연되었음을 암시받을 수 있다. 목동은 계속 소를 찾아 나설 것이다.

따라서 김지하의 「소를 찾아 나서다」에서 눈여겨볼 것은 애린 찾기의 어려움이다. 표면적으로는 화자가 “노을진 낮선 도시”에 있기 때문에 찾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화자가 “네 얼굴이/애린/네 목소리가 생각 안 난다”라고 발화했음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기억하지 못한다면, 설사 만남이 성사되었다 하더라도, 그 만남의 대상이 “애린”임을 깨닫기는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화자의 장애물은 애린을 기억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이다. 그런데 시의 결말 부분에서 그러한 화자가 아니라, “가투 나선 젊은이들 노래 소리”를 배경으로 홀로 흔들리는 “카바이트 불꽃”이 전경화된다. 결국 화자의 문제는 미해결 상태로 남는다. 이것은 화자의 애린 찾기의 ‘불가능성’을 암시한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하지만 “카바이트 불꽃”은 앞서 살핀 「열 가지 소노래 첫째」의 매미소리에 대응됨으로써 화자가 “애린”을 계속 찾을 것임을 알린다.

“카바이트 불꽃” 이미지는 화자가 애린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은폐한다. 그러한 기억은 “캄캄한 지하실 시멘트벽에 피로 그린/네 미소”로 제시되었다. 이러한 ‘불꽃’ 이미지는 심층적으로 화자가 “애린”에 대한 기억을 억압함을 가리킨다. 억압의 대상은 상실되지 않으며, “그것들을 다른 장소 혹은 다른 체계 안에 기입”⁷³됨으로써 보존된다. 또한 프로이트에 의하면, 억압은 “도피와 판단에 따른 거부의 중간 단계”⁷⁴에 있으며, 그 본

73 “Sometimes it reminds one of the economy of sublation[relève] or Aufhebung, and at other times, less contradictory than it seems, of a logic of repression that still retains what is denied, surpassed, buried. Repression doesn’t destroy, it displaces from one place to another within the system. It is also a topological operation.” [Jacques Derrida (2008), p. 10]

74 지그문트 프로이트(2003), 「억압에 관하여」, 윤희기·박찬부 옮김, 『정신분석학의 근본개념』, 열린책들, p. 137.

질은 “어떤 것을 의식으로 진입하지 못하게 하여 의식과 거리를 두게 하는데 있는 것”⁷⁵이다. 이와 같이 주체의 무의식적 거부가 억압의 특질임은 앞에서 살핀 『꿈에』의 화자가 유령인 “너”를 “애린”으로 명명함으로써 “너”를 바로잡고자 했음을 상기시킨다. 그렇다면, 기억나지 않는, “깜깜한 지하실 시멘트벽에 피로 그린” 애린은 시적 주체가 찾아 나선 애린과 어긋나는 것은 아닐까?

정리하면, 『애린』의 시적 주체가 찾고자 하는 보편적 진리(생명)를 담지한 ‘애린’과 역사의 희생자로서 “춡고 고달픈 눈빛”(『꿈에』)을 지닌 ‘애린’ 사이에 간극이 있다. 시적 주체는 기억을 억압함으로써 그러한 간극을 은폐한다.

3. 분열된 시적 주체와 만남 불가능성

그러한 시적 주체의 자기 억압은 아래와 같이 삶과 죽음 사이에서 분열된 주체의 문제로서 나타난다.

1

새 속에서 묶인 내가/나는 새 본다/노을로 타는 새 나 본다/뿔발로 타는 내
 눈 속에서 노을로 타는/날으는 묶인 새 본다/내가 끝끝내/나팔 소리 울리
 면 스러져갈/새

2

참새라면 쥐라면 파리 모기 빈대라면/풀 돌 물 연기 구름이라면/한줌 흙이
 라면/차라리 아예 태어나지 말았더라면/태어나도 노을진 어느 보리밭 가

— www.kci.go.kr

75 지그문트 프로이트(2003), p. 139.

넋/귀 떨어진 돌부처로 모로 누웠더라면/일그러진 오지그릇 속/텅 빈 기다림으로나 기다림으로나/거기서 항시 멈췄더라면/차라리 먼저 간 벗/가느다란 그 한 올/머리카락이었다면

3

입 안에 신침 괴는 날은 틀림없이/꿀 넣어주셨고/발 시리다 싶은 날은 어김없이/털양말 넣어주셨다/면회는 한 달에 단 한번/편지는 써본 일도 받은 일도 없는 긴 세월/내 몸과 당신 몸 바꾸어/어머니는 부처 이루셨나

- 「안팎」 부분

첫 번째 행에서 화자는 자신이 새 속에 묶여 있음을 말한다. 그러나 그를 ‘묶어둔 새’ 역시 화자 자신이다. 화자는 “핏발로 타는 내 눈 속에서 노을로 타는/날으는 묶인 새 본다”라고 진술했다. ‘본다’는 행위는 “핏발로 타는” 눈을 갖고 있는 새와 “노을로 타는/날으는 묶인 새”가 주체와 대상으로 분리되었을 때 가능하다. 하지만 그러한 눈은 “내 눈”이며, 그 눈이 보는 “묶인 새”도 “나”이다. 따라서 화자는 분열된 주체이다.

눈여겨볼 것은 화자가 “차라리 아예 태어나지 말았더라면”이라고 말하며 죽음(自殺)에 대한 욕망을 표백한다는 점이다. 그러한 욕망은 “내가 끝끝내/나팔 소리 울리면 스러져갈/새”에서도 나타난다. 자살은 분열된 주체가 자신을 부정, 파괴하는 극단적 행위이다. 분열된 시적 주체의 자살 충동은 “괴롭힐 것 그저/제 몸 하나밖에 없으니/칼부림할 것 달랑/제 마음 하나밖에 남김 없으니”(「5」)에서도 나타난다. 문제는 주체 분열의 주요 기제가 “갈등에 대한 두 가지 상반되는 반응”⁷⁶이라는 점이다. 자기 부정은 주체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내적 갈등’이다. 시적 주체의 발언에 표면적으로 나타난 죽음에 대한 욕망이 심층적으로는 (ㄱ) 죽음을 욕망함 그리고 (ㄴ) 죽음을 욕

망하지 않음으로 분리되어 긴장 상태를 이루고 있다. 죽음을 욕망하지 않는 태도는 화자가 어머니에 대해 “내 몸과 당신 몸 바꾸어/어머니는 부처 이루셨나”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암시된다. 화자가 자신에 대한 어머니의 정성을 언급하는 부분에서 죽음(自殺)을 욕망하는 스스로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종합하면, 그가 죽음을 결단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따라서 아래에 인용된 시에서 그러한 시적 주체에게 애린이 삶을 명령⁷⁷함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새파란 겨울 하늘에, 질척한 검은 흙길 살얼음 위에 반짝이는 은빛 햇살,
 은빛 냇물 위에, 내 눈시울 은빛 물방울 방울 속에 구름 그늘이 빠르게 지나가고 언뜻언뜻 스쳐지나가고, 웃는다, 괜히 웃는다, 미친 듯이 웃어댄다/
 ‘지금 이대로 떠나버리고 말까’/계엄 속의 거리, 캄캄한 뒷골목, 침침한 술집 뒷방, 수세미 같은 머리칼에 술로 찌들고 화장독으로 썩어 검누런 얼굴에 화투짝 두드리며 낮게 중얼거리던 애린의 그 한마디/
 ‘죽을 용기 있거든/그 용기로 아예 살지 뭘!’/쌍다리를 건넌다, 나무다리가 흔들거린다, 희한하다, 쌍다리를 건넌다, 돌다리가 흔들거린다, 희한하다,

- 「우물시장」 부분

위의 시에 나타난 것과 같이,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거두고자 했던 화자는 그에 대해 능동적으로 결단을 내리지 못한다. 그는 자신에게 “지금 이대로 떠나버리고 말까”라고 물었지만, 응답(response)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애린”이 그러한 질문에 (대신) 응답해야 할 필요는 없다. 왜

77 이와 관련하여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생명이란 삶이 삶에게 살라고 내리는 명령인 것입니다. 이 명령을 그대로 좇아 살아나려고 하는 것, 죽음을 거부하고 죽음으로부터 살아나려고 하는 것, 십무천, 즉 열 가지 하지 말라는 주의를 지켜 ‘살림살이’를 하려고 하는 것이 생명운동 곧 ‘살림’인 것입니다.”[김지하(2002a), 「귀신날」, 『김지하전집 1』, 실천문학사, p. 136]

애린은 화자의 질문에 응답(해야) 했는가? 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흰 그들의 길 3』(학교재, 2003)에 수록된 「애린」에 나타난 김지하의 다음 언술을 읽어볼 수 있겠다.

애린은 창녀라는 것./창녀는 천민이라는 것./인간과 신이 합일하는 순간의 기적이라 할 수 있는 사랑, 바로 그 사랑을 직업으로 하기 때문에 도리어 가장 참혹하게 저주받은 인간이다. 그러하매 바로 그러한 창녀 ‘애린’에 대한 풋사랑은 고통에 찬 기적이다. 그 자체로 모순 어법이다./이 창녀가 그 고통에 찬 기적에 의해 천지 범통을 이어받는 것이 다름 아닌 후천개벽이니 이것이 곧 ‘애린’이다. 그리고 왈 모심[侍]이다.⁷⁸

위의 인용문에서 김지하는 애린을 “창녀”로 규정한다. 이는 앞에서 독해한 「우물시장」의 “애린”이 그러한 인물로 재현되었음을 상기시킨다. 또한 그는 그녀의 ‘사랑’이 곧 “후천개벽”이자 “모심”⁷⁹임을 밝혔다. 즉, 애린의 사랑은 진리를 구현하는, 초월적인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모심으로로서의 사랑이 “인간과 신이 합일하는 순간”에 발생하는 사건이라는 점이다. 요컨대 모심은 “근원적인 생명”과의 ‘동일시’를 의미⁸⁰한다. 따라서

78 김지하(2003c), 「애린」, 『흰 그들의 길 3』, 학교재, p. 98.

79 김지하는 ‘모심’을 “사람이, 민중이, 중생이 안으로는 신령, 생명 또는 무어라고 불려도 좋을 영성, 부처, 진리, 다시 말해 처음도 끝도 없고 무변광대하며 끊임없이 물결치며 생동하는 영, 즉 생동하는 생명, 근원적인 생명 그 자체를 모심으로써 생동케 하고, 밖으로는 그 생명이 무궁무궁하게 유기적이고 통일적으로 사회적으로 활동케 함”으로 밝혔다 [김지하(2002a), p. 65].

80 모심이 동일시의 논리임은 다음 진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결국 내 얘기는 주체는 주체인데,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개방적 주체로서, 타자화하는 주체로서, 타자를 내 안에 끌어안고 있는 주체로서, 또 신과 인간이 하나로 통일되는 신인합일(神人合一)적 신인간(新人間)으로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김지하(2003b), 『사이버 시대와 시의 운명』, 북하우스, p. 30] 첨언하면, 이 글에서 후술되듯이, 김지하의 텍스트적 주체는 그의 진술과 달리 개방적 주체가 아니라 폐쇄적 주체이자 타자를 자기화하는 주체이다.

「우물시장」의 “애린”은 절대적 진리(생명)를 담지한 존재이며, 그러한 애린의 명령인 “(...) 애린의 그 한마디/죽을 용기 있거든/그 용기로 아예 살지 뭘!”은 ‘모심’에 대한 명령이다.

여기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앞에서 『애린』의 시적 주체의 주체화 기획이 애린과의 ‘만남’을 통하여 초월적 주체로의 거듭남임을 밝혔다. 시적 주체가 ‘만남’을 수행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만남’은 “논리와 실행, 이론과 실천, 지식과 삶의 상통성”⁸¹을 의미한다. 주지하듯이, 「십우도」의 결말은 소(진리)를 찾는 목동이 저자에서 이를 실천하는 보살로 거듭나는 것이다. 하지만 앞에서 『애린』의 시적 주체가 분열된 주체이며, 자율적으로 삶을 결단하지 못했음을 살폈다. 즉, 그는 애린을 ‘매개’로 생명을 모신 것이다. 앞당겨 말하면, 그것은 『애린』의 시적 주체가 실천적 차원에서 ‘생명의 모심’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가리킨다. 이러한 불가능함은 「간힘」에서 아래와 같이 재현된다.

술병 속에 갇힌 애린/빛나는 듯 빛나는 듯 미소짓는 듯/술병 속에 흔들리는 애린/창백한 형광등/불빛에 아슴프레 푸른 술병 속에 빛나는 듯//마셔도 마셔도/거기 그대로 갇혀 있는 애린/내 입술도/내 가슴도/내 손과 발, 살점 하나하나마저도/저주로 욱설로 비유로 탄식으로/침묵으로마저 너를 불러도 미소짓는 듯 미소짓는 듯/흔들리며 거기 그대로 갇혀 있는 애린/내게로 다시는/오지 않는 애린//깨뜨려도/또다시 깨뜨려도/술병 속에는 없는 애린/날카로운 유리조각들 위에 얼굴을 묻고/몸부림쳐도 몸부림쳐도/술 속에도 핏속에도 눈물 속에도 없는 너/유리 조각 조각들 속에/빛나는 듯 빛나는 듯 미소짓는 듯/유리조각들 속에 흔들리는 애린/수없이 많은 저/애린의/모습

- 「간힘」 부분

81 정명교(2021), 「청년 김현에게 있어서 만남의 문제: 김현 초기 시론의 형성에 대하여」, 『한국시학연구』 68호, 한국시학회, p. 260.

첫 번째 행에서 “애린”은 “푸른 술병” 속에 갇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렇게 갇혀 있는 애린은 앞에서 살핀 「안퀴」의 “핏발로 타는 내 눈 속에서 노을로 타는/날으는 묶인 새”를 연상케 한다. 중요한 것은 화자가 애린이 갇혀 있는 상황에 대해 모순된 진술을 한다는 점이다. 그는 “깨뜨려도/또다시 깨뜨려도/술병 속에는 없는 애린”이라고 말하며 시의 도입 부분에서의 언술을 반복한다. 이러한 모순된 발언은 화자가 애린을 구출해내는 일의 불가능성을 강화한다. 다르게 말하면, 그것은 화자가 애린을 구할 수 없는 까닭이 “술병”이 아니라 화자 자신에 있음을 가리킨다. 화자가 “내 게로 다시는/오지 않는 애린”이라고 발언한 까닭은 여기에 있다. 그렇다면, 화자와 애린과의 만남의 필요충분조건은 애린이 그에게 오는 일이다. 여기에 「십우도」를 적용해보면, 목동이 소를 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가 목동을 찾아와야만 하는 셈이다.

따라서 『애린』의 시적 주체가 애린과 상호의존적 관계를 형성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앞에서 광기 비슷한 절망에 차서 “미친 듯이 웃어”대며 “지금 이대로 떠나버리고 말까”라고 혼잣말하는 「우물시장」의 화자에게 애린이 살 것을 주문했음을 살폈다. 그것은 삶과 죽음 사이에서 분열된 그를 애린이 구했음을 뜻한다. 그러나 「간힘」의 화자는 애린을 구하지 못한다. 가령, 그는 “내 입술도/내 가슴도/내 손과 발, 살점 하나하나마저도”에서 적시하듯, 자신의 모든 것을 주려고 했지만, 끝내 이를 실행하지 못한다.

햇빛 없는 날/오늘에 너를 묶는 나라의 사람/바람 없는 곳/추억에 너를 가두는 사람/그 마음의 감옥//부서라/애린/끊어라 애린/탈출하라 바람 부는 저 별관으로/내 사랑하는 애린/한 떨기 들꽃으로 시뻘건 흙으로/살아나라/다시 다시 살아나라//죽어가는 나/감옥은 죽음에게 맡기고/뒤에 남기고 뒤에 남기고/돌아보지 말고

- 「살림」 부분

위에 인용된 시의 서사는 ‘화자인 “나”는 감혀 있는 애린을 구할 수 없다’로 요약된다. 화자가 “부서라 애린/끊어라 애린”이라고 말한 것은 그가 애린을 구할 수 없음을 강조한다. 그는 그 까닭을 “죽어가는 나”로 제시했다. 눈여겨볼 것은 그러한 서사의 틀이 앞서 살펴본 「간헐」과 동일하다는 점이다. 시적 주체는 애린과 일방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따라서 시적 주체와 애린과의 만남은 불가능하다. 시적 주체에게는 ‘만남’의 핵심 요소인 “자율성과 상호성”⁸² 모두 결여되었다. 그가 자율적으로 생을 결단하는 것도, 그리고 그를 구원한 애린을 구하는 것도 불가능함을 지금까지 살폈다. 이러한 ‘불가능성’은 아래에서 김지하가 생명을 모심으로 써 주체의 분열을 극복할 수 있음을 주장한 것과 어긋난다.

한마디로 저는 찢어진 사람입니다. 생명력을 상실하고 생명이 파괴된 사람입니다./지난 5년 동안 혹독한 병에 시달리면서 제가 생각한 것은 산속으로 들어가 중이 되든가, 자살을 하든가, 두 길밖에 없다고 생각해 왔습니다./그러나 이렇게 생명이 파괴된 인간이 그래도 대지를 딛고 이 세상, 이 장바닥에서 숨을 쉬며 살아 있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옥중에서 읽었던 수운·해월 선생의 시천주사상, 그로부터 내 안에 유일한 무궁한 우주 생명이 살아 있고 내가 비록 병들고, 못나고, 윤리적으로 타락한 인간이라고 하더라도 나의 근본에는 한도 없고, 처음도 끝도 없는 우주생명이 살아 있다는 생각, 그리고 모든 이웃들과 동식물, 무기물, 우주 전체에까지 나의 생명은 연결되어 있어서 과거·현재·미래가 내 안에 하나로 연속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병들거나 죽더라도 결코 소멸하지 않는다는 생각, 바로 이 생각 하나 때문이었습니다.⁸³

82 정과리(2021), 「‘만남’의 관점에서 본 한국 근대시의 묘상 점검 2」, 『월간 현대시』 6월호, 한국문연, p. 157.

83 김지하(2002b), 「개벽과 생명운동」, 『김지하전집 2』, 실천문화사, pp. 27-28.

위의 인용문에 나타나듯이, 김지하는 자신을 “찢어진 사람”, 즉 분열된 존재로 규정한다. 이러한 그는 “생명력을 상실하고 생명이 파괴된 사람”이다. 그 발언은 앞에서 살핀 『애린』의 시적 주체가 죽음(自殺)을 발화했음을 상기시킨다. 그러한 “찢어진 사람”으로서 그는 “산속으로 들어가 종이 되든가, 자살을 하든가”에 대해 생각했음을 언급했다. 바꿔 말하면, 그는 자신의 문제를 ‘생명의 파괴’로 인지하고, 해결책을 찾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세속적) 삶에서의 떠남(분리)’을 생각한 것이다. 그런데 김지하는 생명을 모심으로써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했음을 주장했다. 그것은 “모든 이웃들과 동식물, 무기물, 우주 전체에까지 나의 생명은 연결되어 있어서 과거·현재·미래가 내 안에 하나로 연속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병들거나 죽더라도 결코 소멸하지 않는다는 생각”이라는 진술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하지만 그러한 초월, 즉 ‘모심’에 내재된 균열은 다음과 같이 장면화된다.

땅 끝에 서서/더는 갈 곳 없는 땅 끝에 서서/돌아갈 수 없는 막바지/새 되어 날거나/고기 되어서 숨거나/바람이거나 구름이거나 귀신이거나간에/변하지 않고는 도리 없는 땅 끝에/혼자 서서 부르는/불러/내 속에서 차츰 크게 열리어/저 바다만큼/저 하늘만큼 열리다/이내 작은 한 덩이 검은 돌에 빛나는/한 오리 햇빛/애린/나

- 「50」

화자는 변화의 임계점에 도달했다. 그것은 “더는 갈 곳 없는 땅 끝에 서서”와 “변하지 않고는 도리 없는 땅 끝에”라는 구절에서 확인된다. 여기에서 화자가 변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수동적으로 내몰렸음이 드러난다. 그런데 화자는 변신(變身)이라는 과제를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 “혼자 서서 부르는/불러”를 통해서 그가 무엇을 호출함으로써 그 과제를 수행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이 구절의 불분명함은 시의 마지막 부분에서 돌연 “애린”이 등장한 것과 유관하다. 시에서 “애린”이라는 구절을 삭제했을 때, 목적어가

생략된 “혼자 서서 부르는”은 미완성된 부분으로 남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애린을 ‘매개’로 화자는 “이내 작은 한 덩이 검은 돌에 빛나는/한 오리 햇빛”, 즉 ‘빛’과 같은 초월적 존재로 거듭난 것이다. 바꿔 말하면, 애린은 시적 주체와 ‘생명’을 모신 초월적 주체 사이에 간극이 있음을 나타낸다. 후술 되듯이, 그것은 시적 주체의 ‘초월적 존재 되기’가 정화인 승화를 뜻한다는 점과 관계가 깊다.

4. 정화로서의 승화와 새로움 산출의 불가능성

『애린』 연작에서 초월성을 표상하는 촛불 이미지가 수직성을 재현함을 앞에서 밝혔다. 그러한 상승의 움직임은 표상하는 승화는 ‘억압’을 뜻한다. 데리다에 의하면, “상승의 도식, 높은 것을 향하는 움직임, 즉 전치사 ~ 위로로 표시되는 모든 것은 여기서 악취를 풍기고 만져서는 안 되는 신체 부위들로부터, 즉 불순한 것으로부터 고개를 돌리는 정화의 도식만큼 결정적”⁸⁴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승화는 정화의 논리와 다르지 않다. 승화 작용을 통해 초월적 위치에 도달함으로써 자신을 오염시키는 것을 부정·배제⁸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화 작용으로서의 승화는 타자를 차단함으로써 폐쇄적인 회로를 구축⁸⁶한다. 그러한 정화로서의 승화는 “애린/두 눈도 두 손다 잘리고/이젠 두 발 모두 잘려 없는 쓰레기/이 쓰레기에서 돋는 것/분홍 빛 새살로 무심결 돌아오는/애린/애린/애린아”(「I」)로 재현되었다.

승화의 논리는 김지하가 「풍자냐 자살이냐」(1970)에서 전개한 ‘한’(恨)

84 자크 데리다(2013), 정승훈·진주영 역, 「법 앞에서」, 『문학의 행위』(데릭 에트리지 편), 문학과지성사, p. 256.

85 자크 데리다(2013), pp. 256-257.

86 마르틴 헤글룬드(2021), 오근창 역, 『급진적 무신론: 데리다와 생명의 시간』, 그린비, pp. 87-88.

에 대한 논의에서도 나타난다. 그는 한을 “생명력의 당연한 발전과 지향이 장애에 부딪혀 좌절되고 또 다시 좌절되는 반복 속에서 발생하는 독특한 정서 형태이며, 이 반복 속에서 퇴적되는 비애의 응어리”⁸⁷로 규정했다. 그러한 한을 시적 자원으로 삼아 시인은 “시적 폭력에 이르고, 드디어 시적 폭력으로 물신의 폭력에 항거”⁸⁸해야 함을 주장했다. 그러한 과정은 “현실의 폭력이 시인의 비애로, 시인의 비애가 다시 예술적 폭력으로 전화”⁸⁹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실의 폭력 → 시인의 비애 → 예술적 폭력’의 과정은 ‘상승’의 움직임으로 정리된다. 그러한 움직임은 앞서 언급했던 승화를 표상한다.

흥미로운 것은 김지하가 80년대 다시 제출한 한에 대한 관념 역시 그러한 승화를 적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을 한으로 풀면 폭력적인 자기발현밖에 안 됩니다. …(중략)… 문제는, 쌓이고 쌓인 한을 삭이는 것입니다./삭인다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분노를 누르고 승화시키는 것, 예술적으로는 가슴의 한이나 원형의 한, 쓰러짐, 신산고초, 삶의 애처로움을 승화시키기 위해 피나는 수련과 독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판소리하는 사람들이 폭포 앞에서 목이 터져라 피나는 노력을 하고 산천을 돌아다니면서 병신들 흉내를 내고 별짓을 다하는 것입니다. 수십 년에 걸쳐서 합니다. 이것이 제대로 되었을 때 참된 표현이 됩니다./원초적인 한을 삭이는 데에는 굉장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미적으로도 그런 노력을 해야만 미학적 성과가 나타납니다. 윤리적으로도 그래야 사람이 성장합니다.** 삭여야 합니다. 삭이는 것을 ‘시감새’라고 합니다.⁹⁰

87 김지하(2002c), 「풍자나 자살이나」, 『김지하전집 3』, 실천문화, p. 29.

88 김지하(2002c), p. 29.

89 김지하(2002c), p. 30.

90 김지하(2002c), pp. 283-284.

위의 인용문은 사상적 전회 이후 발표한 산문 「흰 그늘의 길」에서 가져온 것이다. 같은 글에서 김지하는 한을 “어떤 마음의 지향이 장애에 부딪혔을 때, 침전되었을 때, 억압되었을 때 발생하는 심리상태”⁹¹로 다시 정의한다. 표면적으로 이러한 재정의는 그가 1970년대에 제출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한을 승화시키는 방법론에서 차이가 난다. 1970년대에는 그러한 한을 ‘예술적, 즉 시적 폭력’으로써 풀 것을 주장했음을 앞에서 살폈다. 그렇지만 위의 인용문에서는 그러한 시적 폭력을 부정한다. 그는 “한을 한으로 풀면 폭력적인 자기발현밖에 안 됩니다”라고 말했던 것이다. 그리고 “시김새”를 한을 삭이는 새로운 방법론으로 제출한다.

그러나 이 새로운 방법론의 수행 가능성에 대해서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 과연 “피니는 수련과 독공”으로써 삭이면, “썩이고 썩인 한”은 ‘필연적’으로 승화될 수 있을까? 김지하는 “판소리하는 사람”들의 훈련법을 그 ‘필연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하고 있지만, 정말 그러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다르게 말하면, ‘삭임’으로써 한이 승화될 수 있다는 논리의 근거로 제시된 실천의 방법론이 구체적이지 않고, 그 인과관계도 불분명하다.⁹² 이러한 모호함은 김지하가 삭임을 폐쇄적인 구조로서 제출했음과 유관하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한의 삭임을 열린 과정으로 제시한 아래의 인용문과 비교해볼 수 있겠다.

반면 한에서의 삭임은 슬픔의 배출을 억제한다. 외부적 강요에 따른 수동적 억제이든 능동적 억제이든, 한의 경우 슬픔은 가슴 한편의 향아리에 봉인된다. 그곳에서 오랜 숙성의 시간을 갖는다. **그 시간 동안 미생물 같은 비**

91 김지하(2002c), p. 282.

92 이러한 모호함은 ‘시김새’에 대한 다음 설명에서도 나타난다. “거기에 철학적 사유와 영적 깊이가 들어가는 높은 기교, 이른바 쿵푸, 공부 차원의 달관적인 기교를 가리켜 ‘시김새’라고 합니다. 이 시김새가 바로 기교에 의한 감각적 미의식을 관조와 달관의 깨달음으로 연속시키는 기술적 요체입니다./시김새는 안으로 쌓여서 발효해야 깊은 맛이 우러나오는 거예요.”[김지하(2002c), p. 319]

가시적 존재가 활동한다. 보이지 않는 타자들(부재하는 연인에서부터 슬픔이 앞을 가려 식별되지 않았던 주변인들까지)이 활발히 치유를 돕는다. 여기에서 관건은 병인(病因)으로 돌변할 수 있는 **타자들을 포용하고 그들과 공존할 수 있는 자로 스스로 변모(變貌)될 때까지** 고통스러운 숙성의 시간을 견디는 것이다. 인고의 시간을 버텨낼 때에야 비로소 비가시적 타자는 조력자가 되며, 슬픔은 말짱게 곰삭을 수 있다. **슬픔은 원래의 모습과는 전혀 단판으로 변모한다.** 여전히 원한의 자취는 남아 있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격분은 아니다. 이미 삭임을 통해 몸의 수준에서부터 변신(變身)하였기 때문이다.⁹³

위의 인용문에서 ‘삭임’은 한을 견디는 것이 아니며, 타자 지향적인, 개방적인 과정으로 나타난다. “미생물 같은 비가시적 존재”인 타자를 받아들여 이 삭임의 과정을 겪어낸 주체는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된다. 여기에서 “슬픔은 원래의 모습과 전혀 단판으로 변모한다”는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삭임으로써 주체가 초월적 존재로 거듭남을 뜻하지 않는다. 주체는 ‘새로운’ 존재가 된 것이다. 그와 같이 “타자들을 포용하고 그들과 공존할 수 있는 자”로 새롭게 거듭남은, 과거의 틀(frame) 안에서는 실현할 수 없었지만, 내재되어 있던 무수한 가능성 중 하나를 실현한 결과이다.

그러나 초월을 지향하는 김지하의 삭임은 이러한 열린 구조가 아니라 닫힌 구조이다. 따라서 앞에서 살핀 논리의 모호함은 삭임의 과정에 타자의 개입을 차단한 결과이다. 그것은 앞에서 언급한 정화의 논리로서의 승화와 유관하다. 위의 인용문에 제시되었듯, 타자는 “병인(病因)으로 돌변”할 수 있다. 즉, 열린 구조 하에서는 타자의 침입으로 인해 훼손, 파괴될 수 있으므로 주체가 ‘필연적으로’ 초월적 존재로 거듭날 수는 없다.

93 김동규(2016), 「한(恨)과 멜랑콜리의 비교 연구」, 『비교 한국학』 24(3), 국제비교한국학회, pp. 234-235(인용문에 있는 굵은 글씨는 원문의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모호함이 김지하가 제출한 ‘차원변화’에서도 나타난다는 점이다. 차원변화는 초월의 논리를 구조화한 것이다. 아래의 인용문에 나타나듯이, 그는 ‘차원변화’가 이분법적 사고 구조를 타파함으로써 대립되는 것이 순환·공존 가능성을 사유할 수 있는 새로운 틀(frame)임을 주장했다.

(1) 그런데 그 때 제가 특징적으로 체험한 것은 빛과 어둠이, 선과 악이, 육욕과 증오 같은 서로 반대되는 것들이, 그리움과 혐오감이, 항상 왔다갔다한다는 것입니다. 한 사흘 밝으면 다시 나흘은 엄청나게 어둡습니다. 이것이 계속 왔다갔다합니다. 그 상태를 벗어나면서 소각(小覺), 조그마한 깨달음이 일어납니다. ‘차원의 변화’. 이 말을 기억해 두세요. 즉, 두 개의 극단과 극단이 왕래하거나 병존하거나 교체되면서 역설적인 패러독스, 역설적인 균형을 이루는 것이 마음입니다.⁹⁴

(2) 눈에 보이는 드러난 차원의 극과 극의 이것과 저것을 판단할 때 ‘그렇다-아니다’, ‘아니다-그렇다’로 판단합니다. 그러면서 숨어 있는 차원이 드디어 드러나면서 그 관계는 발전합니다. 차원변화를 합니다. 변증법처럼 이것과 저것이 투쟁하거나 상호통일되어서 3의 합명제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보이고 드러나는 차원에서는 이것과 저것, 상호모순되는 것이 상호보완적으로, 역설적으로 균형을 이루되 새로운 것이 나타날 때는 숨어 있는 차원이 창조적으로 생성되어 드러나면서 그 숨어 있는 차원과 기왕의 드러난 차원 사이에, 즉 옛날 차원과 새 차원 사이의 관계도 또한 ‘아니다-그렇다’의 관계가 됩니다.⁹⁵

94 김지하(2002c), pp. 272-273.

95 김지하(2002c), p. 274.

위의 인용문 (1)에서 김지하는 ‘빛과 어둠’ 및 ‘선과 악’ 등이 맺고 있는 관계를, ‘정’(正) ↔ ‘반’(反)의 관계가 아니라 ‘아니다-그렇다’의 틀(frame)에 입각해, 새롭게 사유할 것을 요청한다. 그것은 변증법에 대한 그의 특유의 관점에 기인한다.⁹⁶ 하지만 그가 예로 들고 있는 대상 간의 교집합에 대해서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 “빛과 어둠”과 “선과 악” 그리고 “그리움과 혐오감”은 동일한 집합으로 묶이지 않는다. ‘빛과 어둠’ 및 ‘선과 악’과는 다르게, “그리움과 혐오감” 그리고 “욕욕과 증오”는 양가감정(ambivalence)의 문체로 풀이된다.⁹⁷ 양가감정은 하나의 대상에 대해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을 동시에 느끼는 것이다. 즉, 대상에 대한 모순된 욕구가 공존함을 뜻한다.

주목할 것은 양가감정이 ‘합체’(incorporation)를 추동⁹⁸한다는 점이다. 주제는 ‘합체’로써 외부에 있는 욕망의 대상을 내부로 포섭하고 동일시하여 양가감정을 ‘해소’한다. 즉, 타자를 자기와 ‘동일화’함으로써 타자로부터 훼손되지 않으려 한다. 이러한 합체에 의한 양가감정의 해소는 앞에 살펴본 생명과의 ‘동일시’를 의미하는 ‘모심’의 논리와 다르지 않다. 그가 ‘생명’에

96 김지하는 2002년 10월에 열린 <‘문학의 집·서울’ 수요문학광장 특강>에서 변증법을 “이 것과 저것은 서로 싸우고 통합되기는 하지만 통합되는 것은 잠정적이고 싸우는 것은 항구적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가 하나를 싸워서 이긴다. 그래서 통합하는 겁니다.”[김지하(2003a), p. 192]라고 규정했다.

97 이와 관련하여 김지하의 다음 발언을 참고할 수 있다. “마음도 이중적입니다. 음양입니다. 나는 참선을 감옥에서 백일 해봤습니다. 캄캄한 어둠이 나오다가 하얀 광명이 나오고 한 사흘 나흘 왔다갔다합니다. 지독한 욕욕이 왔다가 지독한 혐오감으로 바뀝니다.”[김지하(2003a), p. 136]

98 프로이트가 제시한 다음의 ‘Einverleibung’를 데리다는 자신의 체제 안으로 타자를 거둬들이는, 즉 타자의 자기화로 새롭게 정립하였다. (1) “다른 곳에서도 우리는 이미 동일시가 대상 선택의 예비 단계, 즉 자아가 대상을 선택하는 최초의 방식-양가 감정의 방식으로 표출되는 선택의 방식-임을 보여주었다. 자아는 이렇게 선택한 대상을 그 자체에 통합시키길 원하고, 이런 과정이 일어나는 리비도 발달 단계의 구순기에는 그 대상을 집어삼킴으로써 그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다.”[지그문트 프로이트(2003), p. 253] (2) 데리다의 합체에 대해서는 나카마사 마사키(2018), 김상운 역, 『자크 데리다를 읽는 시간』, 아르테, pp. 267-268 참조.

상술한 것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1) 생명은 “처음도 없고 끝도 없고 무변광대하고 죽어도 죽지 않는”⁹⁹ 것이다. (2) 생명은 “잉태되고 태어나고 자라고 살고 죽고, 죽어 다시 다른 생명체로 다른 요소로 전환하는 일체의 자연운동”¹⁰⁰이다. 마지막으로, (3) 생명은 “그 내면에 영성, 마음, 판타지 이것을 지닌 물질 또는 물질 관계와 그 변화”¹⁰¹이다. 요컨대 감지하는 생명을 ‘영원한 운동’을 중심으로 규정¹⁰²했다. 하지만 문제는 생명을 모심으로 써 주체가 영원성을 획득하게 되는 근거(ground)가 모호하다는 점이다. (ㄱ) 생명이 신(神)과 같이 신성하고 영원한 것이어서 유한성을 극복한 것인지, 아니면 (ㄴ) 집단 주체이므로 하나의 유기체가 죽음을 맞이하면 다른 유기체가 뒤이어 운동을 개시하기 때문에 무한히 운동할 수 있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이러한 모호함은, 위의 인용문 (2)에 나타난 것과 같이, “차원변화”에서 “새로운 것이 나타날 때는 숨어 있는 차원이 창조적으로 생성되어 드러나”는 실천 과정에 대한 논리적 서술이 명료하지 않다는 점과 유관하다. 그것은 시집 『애린 2』에 수록된 마지막 시에서도 아래와 같이 살펴볼 수 있다.

내가 이렇게 기대 있는 것은/누굴 사랑해서가 아닙니다/내가 이렇게 기대 있는 것은/한밤중 열두 시가 지난 시간/당신도 자고 아이들도 잠든 시간/담 건너 고양이 울음도 죽은 시간/이 시간에 깨어 있는 것이/사는 것보다 더 피로운 시간/깨어 있다는 것/죽기보다 더 버리고 싶은 일/알겠어요 이 시간/내가 기대고 있는 까닭/내가 기대고 있는 것에 대해서/생각하고 있는

99 김지하(2002b), p. 131.

100 김지하(2002a), p. 54.

101 김지하(2003a), p. 99.

102 “수운 선생의 해설 가운데 하늘에 대한 설명이 없다는 것, 나는 이것을 ‘활동하는 무(無)’라고 부릅니다. 하늘님은 활동하는 무다. 뭐라고 규정할 수 없는 창조적 활동이라는 것입니다.” [김지하(2003b), p. 75]

것/누구라도 좋지요/돌멩이라도 좋고/쓰레기라도 좋고/젓더미라도 좋지요/사랑하겠다는 것

- 「사랑」

위에 인용된 시에 나타난 “사랑”은 「십우도」의 최종 단계인 입전수수(入塵垂手)에서 제시된 ‘자비’를 상기시킨다. 입전수수는 “사람들 사이로 들어가서 구원의 손을, 사랑의 손을 내민다”는 것을 뜻하는데, 이는 목동의 궁극적인 목적이 ‘구원과 사랑’임을 알린다.¹⁰³ 그런데 화자는 “사랑”에 대한 진술을 반복한다. 시의 첫 부분에서 그는 “내가 이렇게 기대 있는 것은/누굴 사랑해서가 아닙니다”라고 말하며, 아무도 사랑하지 않음을 고백했다. 하지만 마지막 부분에서는 “사랑”할 것을 선언한다.

문제는 이 시의 문면을 통해서 화자가 자신의 첫 번째 발화를 반복하고 “사랑”을 선언한 논리를 인식할 수 없다는 점이다. 위의 시는 “알겠어요 이 시간”을 중심으로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 있다. 전반부에서는 화자에게 삶은 죽는 것보다 더한 고통을 안겨주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것은 “사는 것보다 더 괴로운 시간” 그리고 “죽기보다 더 버리고 싶은 일”이라는 구절에서 드러난다. 그렇지만 그는 돌연 “알겠어요 이 시간”이라고 말하며, “사랑”이 그가 “기대고 있는 까닭”임을 밝힌다. 이러한 논리의 결여는 화자가 삶을 죽음보다 더한 고통으로 느끼는 주체와 “사랑”을 선언하는 주체로 분열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그와 같이 분열된 주체인 화자에게 자신이 과거의 결심을 부정하고 “사랑”을 선언하는 내적 논리를 구성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어째서 그러한가?

앞에서 『애린』 연작의 시적 주체의 주체화 기획이 ‘신생에 대한 충동’에 의해 추동됨을 밝혔다. 하지만 새로움은 실천의 결과로서 발생한다. 바꿔 말하면, 주체는 실천을 통해 미지의 것으로서의 새로움을 산출함으로써

기존의 구조를 탈구축할 수 있다. 그러나 ‘동일시’에서는 앞서 살핀 폐쇄성으로 인해 그러한 새로움이 발생 불가능하다.¹⁰⁴ 그러므로 『애린』 연작에 재현된 주체화 기획의 ‘불가능성’은 ‘동일시’로는 기존 체제를 해체하고 새로움을 생성하는 일이 가능하지 않음을 나타낸다. 정화로서의 승화, 즉 초월의 논리로는 열사에 대한 애도를 수행하는 일이 불가능했던 것이다.

5. 나가며: 강한 빛(luce)과 미광(lucciole)의 사이에서

지금까지 이 글에서는 1980년대 김지하의 생명사상으로서의 전회가 ‘열사의 정치학’에 내재된 ‘증상’(symptom)과 유관하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주체화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애린 1·2』에 대한 징후적 독해를 수행했다. 『애린』 연작은 생명 사상으로서의 전회가 재현된 텍스트이다. 『애린』 연작에 재현된 생명을 향한 운동은 ‘신생에 대한 충동’에 의해 추동되는데, 그러한 새로운 주체 되기는 애린과 시적 주체와의 만남으로 표상된다. 애린은 삶과 죽음 사이의 ‘간극’에 존재하는 ‘유령’으로 재현된다. ‘으스스한 것’(the eerie)인 유령에는 ‘오류’를 바로잡고자 하는 시적 주체의 욕망이 투사되었다. 『애린』의 시적 주체는 유령을 “애린”으로 고쳐 불러 역사의 희생자로서 죽임을 당한 자를 교정하고자 한다. 그것은 역사의 희생자로서의 애린과 시적 주체가 찾고자 하는, 진리인 생명을 담지한 애린 사이에 간극이 있음을 뜻한다. 하지만 그는 역사의 희생자인 애린에 대한 기억을 억압함으로써 그 간극을 은폐한다. 하지만 그와 같이 기억을 억압한 시적 주체는 분열된 주

104 “합치한다는 것은 두 증언이 합치하면서 서로 확증되고 이에 따라 증거가 되거나 또는 사물과 정신의 합치가 진리의 정의 자체일 때를 말한다. 따라서 합치한다는 것은 둘의 예측 불가능한 마주침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하나와 다른 하나의 전적인 일치성을 의미한다. 아무것도 초과하지 않고 부족하지도 않으며 더 이상 아무런 욕망할 것도 남겨두지 않는, 그러나 바로 그 때문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일치성이다.” [프랑수아 줄리앙 (2021), 이근세 옮김, 『탈합치: 예술과 실존의 근원』, 교유당, p. 33]

체로서 만남의 핵심 요소인 ‘자율성과 상호성’을 결여하고 있다. 그러한 시적 주체는 애린과 만날 수 없다. 그러한 만남 불가능성은 동일시를 통한 초월적 주체 되기의 기획으로는 새로운 주체로의 거듭남이 불가능함을 의미한다. 그것은 초월성의 논리인 정화로서의 승화와 유관하다. 김지하의 텍스트에서 초월성은 최종 진리인 생명과의 ‘동일시’로 표상되며, 그러한 동일시는 타자의 개입을 차단한 결과이다. 동일시의 특질인 폐쇄성은 텍스트에서 논리적 혼란(모호함)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애린』 연작은 ‘동일시’를 통한 초월, 즉 정화의 논리로는 기존 체제를 탈구축한 결과인 미지로서의 새로움을 산출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심층적으로 드러낸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 ‘불가능성’을 성찰하게 함으로써 당대에 생산된 문학 텍스트의 ‘새로운 (애도의) 언어’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한다. 김지하의 텍스트에서 드러난 논리적 혼란은 텍스트의 심층 질서인 동일시의 논리로 포획될 수 없는 비동일적인 부분을 인식케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지하의 『애린』 연작은, 권위주의 정권이 지배했던 어두운 시대를 밝혔던 빛이 서치라이트처럼 “강한 빛(luce)”이 아니며 “미광”(luciole)¹⁰⁵임을 다시-인식하게 하여, 당대의 문학사의 별자리(constellation)를 탈구축하는 작업을 요청한다.

105 이 부분은 조르주 디디-위베르만이 『반딧불의 잔존: 이미지의 정치학』에서 개진한 논의에 영감을 받아 씌어진 것이다. 특히 다음을 참고하였다. “그러므로 최종적 진리를 위해서는 현실이 파괴되어야 한다. 이것이 철학자들의 ‘묵시록적 어조’일 것이다. 이때 철학자들은 약한 ‘진리의 미광들’—마치 반딧불처럼 영락없이 한시적이고, 경험적이고, 산발적이고, 미약하고, 잡다하고, 일시적인 것—보다는 강한 ‘진리의 빛’을 더욱 좋아한다. 후자의 강한 빛은 차라리 초월적인 빛, 빛 위의 빛, 빛들 위의 빛으로 계시되고, 그 아래의 빛은 모두 어두운 구석으로 내몰려 사라져야 하고, 다른 곳으로 도주해야 한다.” [조르주 디디-위베르만(2020), 김흥기 역, 『반딧불의 잔존: 이미지의 정치학』, 도서출판 길, pp. 78-79]

참고문헌

자료

- 김지하(2009), 『소근소근 김지하의 세상 이야기 인생 이야기 4』, 이룸.
- 김지하(2003a), 『김지하의 화두』, 화남.
- 김지하(2003b), 『사이버 시대와 시의 운명』, 북하우스.
- 김지하(2003c), 『흰 그늘의 길 3』, 학교재.
- 김지하(2002a), 『김지하 전집 1』, 실천문학사.
- 김지하(2002b), 『김지하 전집 2』, 실천문학사.
- 김지하(2002c), 『김지하 전집 1』, 실천문학사.
- 김지하(1993), 『김지하 시전집』 1·2, 솔출판사.
- 김지하(1991a), 『타는 목마름에서 생명의 바다로』, 동광출판사.
- 김지하(1991b), 「젊은 벗들! 역사에서 무엇을 배우는가」, 조선일보 홈페이지. 『조선일보』, p. 3, 2022. 01. 16.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1991&M=05&D=05&ID=9105050301.
- 박승희(1991), 「박승희 열사 유서」, 박승희정신계승사업회 홈페이지. 2022. 2. 21(박승희 열사.org/index.php/keepsake/?vid=1).
- 「'소신과 배신' 사이의 김지하」, 시사저널 홈페이지, 『시사저널』, 1991. 5. 23, 2022. 1. 16.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106621>.
- 「酷使 등 항의... 焚身. 평화시장 재단사, 병원서 숨져」, 『경향신문』,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1970. 11. 14, p. 7, 2022. 1. 16.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publishDate=1970-11-14&officeId=00032&pageNo=1>.

논저

- 가스통 바슐라르(2017), 김병욱 역, 『촛불』, 마음의숲.
- 강웅식(2005), 「'한'의 폭력에서 '흰 그늘'의 생성으로: 김지하의 미학사상에 대하여」, 『계간 서정시학』 15(2), 계간 서정시학, pp. 65-81.
- 권성훈(2020a), 「김지하 시 세계의 비극성과 정화의식」, 『국제한인문학연구』 26, pp. 107-136.
- 권성훈(2020b), 「김지하 시편의 '성과 속' 의식」, 『한국시학연구』 62, 한국시학회, pp. 9-36.
- 김동규(2016), 「한(恨)과 멜랑콜리의 비교 연구」, 『비교 한국학』 24(3), 국제비교한국학회, pp. 213-240.
- 김동규(2014), 『멜랑콜리아』, 문학동네.
- 김명희(2020), 「5·18 자살의 계보학: 치유되지 않은 5월」, 『경제와 사회』 126호, 비평가학회, pp. 78-115.

- 김원(2015), 「전태일 분신과 80년대 ‘노동열사’ 탄생의 서사들」, 『민족문학사연구』 59, 민족문학사연구소, pp. 105-143.
- 김인옥(2012a), 「김지하 시 『애린』에 나타난 ‘십우도’의 상징과 변용」, 『한국문예비평연구』 37,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pp. 31-60.
- 김인옥(2012b), 「김지하 시에 나타난 생명의 재현」, 『동학학보』 26, 동학학회, pp. 261-292.
- 김정환(2020), 『비혁명의 시대: 1991년 5월 이후 사회운동과 정치철학』, 빨간소금.
- 김정환(2014), 「1980년대 운동사회의 감성: 애도의 정치와 멜랑콜리 주체」, 『한국학연구』 33집,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pp. 79-103.
- 김종철(1991), 「김지하 시인, 돌아오십시오」, 『월간 말』, 월간말, pp. 32-35.
- 김주연(1993), 「눈이 붉은 작은 새, 큰 새가 되어: 김지하의 시세계를 돌아보며」, 『문학과 사회』 6(4), 문학과지성사, pp. 1367-1390.
- 김주연(1986), 「현실, 시 그리고 초월」, 『외국문학』 8, 열음사, pp. 400-407.
- 김현서(2017), 『김병곤 평전』, 실천문학.
- 김형중 외 엮음(2015), 『한국문학의 가능성: 문지의 논리 1975~2015』, 문학과지성사.
- 김홍중(2009), 『마음의 사회학』, 문학동네.
- 나카마사 마사키(2018), 김상운 역, 『자크 데리다를 읽는 시간』, 아르테.
- 대니 노부스 편(2013), 문십정연 역, 『라캉 정신분석의 핵심 개념들』, 문학과지성사.
- 데릭 애트리지 편(2013), 정승훈·진주영 역, 『문학의 행위』, 문학과지성사.
- 류지연(2001), 「김지하의 생명식과 『애린』」, 『한국문예비평연구』 9, 한국현대문학비평학회, pp. 55-67.
- 마르틴 헤글룬드(2021), 오근창 역, 『급진적 무신론: 데리다와 생명의 시간』, 그린비.
- 박경수(2018), 「일제강점기의 시에 나타난 촛불의 상상력과 의식지향성 연구」, 『한국민족문화』 66,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pp. 93-124.
- 박연희(2018), 「‘김지하 봄’과 김현, 문지, 최승자」, 『동악어문학』 76, 동악어문학회, pp. 157-188.
- 방현석(1991), 「김지하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월간 말』, 월간말, pp. 76-79.
- 서주석·백원기(2015), 「치유와 구도의 시학으로서 『십우도』」, 『한국사상과 문화』 79, 한국사상문화학회, pp. 486-509.
- 서준섭(1992), 「우주와 역사: 김지하의 문학사상」, 『서정시학』 (2), 계간 서정시학, pp. 158-171.
- 슬라보예 지젝 외(2013), 최용미 역, 『아듀 데리다』, 인간사랑.
- 신명희(2018), 「십우도와 목우도의 비교 고찰」, 『동아시아불교문화』 34,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 pp. 41-66.
- 신지하(2019), 「십우도(尋牛圖)의 일원상(一圓相): 추상성(抽象性)과 메타포(Metaphor)로서의 일원상(一圓相)」, 『동아시아불교문화』 40,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 pp. 523-563.
- 요코하마 고이즈(2001), 장순용 역, 『십우도·마침내 나를 잇다』, 들녘.

- 원혜영(2015), 「심우도와 고통의 패러다임」, 『한국교수불자연합학회지』 21(3), 사단법인 한국교수불자연합회, pp. 41-56.
- 이남희(2015), 유리·이경희 역, 『민중 만들기』, 후마니타스.
- 이승훈(1989), 「흰 빛과 붉은 빛의 이미지」, 『작가세계』 1(3), 작가세계, pp. 154-163.
- 이창언(2009), 「분신자살(焚身自殺)의 구조와 메커니즘 연구: 학생운동을 중심으로」, 『기억과 전망』 21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pp. 148-339.
- 이철호(2020), 「1980년대 김지하의 민중론과 생명사상: 장일순, 원주캠프, 동학」, 『상허학보』 60, 상허학회, pp. 183-218.
- 정과리(2021), 「‘만남’의 관점에서 본 한국 근대시의 묘상 점검 2」, 『월간 현대시』 6월호, 한국문연, pp. 152-157.
- 정과리(2016), 『피비우스의 분면을 떠도는 한국문학을 위한 안내서』, 문학과지성사.
- 정명교(2021), 「청년 김현에게 있어서 만남의 문제: 김현 초기 시론의 형성에 대하여」, 『한국시학연구』 68호, 한국시학회, pp. 255-279.
- 정연정(2011), 「김지하의 ‘애린’과 ‘모심’의 시학: 불교 생태론적 관점을 중심으로」, 『문학과학 환경』 10(1), 문학과환경학회, pp. 145-171.
- 정효구(1998), 『한국 현대시와 자연탐구』, 새미.
- 조강석(2019), 「시 이미지 연구방법론 (2): 문학 이미지는 무엇을 욕망하는가?」, 『상허학보』 57, 상허학회, pp. 127-161.
- 조르주 디디-위베르만(2020), 김흥기 역, 『반딧불의 잔존: 이미지의 정치학』, 도서출판 길.
- 지그문트 프로이트(2003), 윤희기·박찬부 역, 『정신분석학의 근본개념』, 열린책들.
- 진태원(2019), 『애도의 애도를 위하여: 비판 없는 시대의 철학』, 그린비.
- 천정환(2021), 『송배 애도 적대: 자살과 한국의 죽음정치에 대한 7편의 하드보일드 에세이』, 서해문집.
- 최서윤(2020a), 「시인의 ‘지계꾼’ 되기는 가능한가?: 김지하의 1970년대 문학사적 난제에 대한 일 고찰」, 『현대문학의 연구』 70, 한국문학연구학회, pp. 323-371.
- 최서윤(2020b), 「한국 현대시에 나타난 비동일적 시학으로서의 추(醜) 연구: 이상·김수영·김지하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옥선(2016), 「김지하의 시에 나타난 생명사상과 글쓰기 방식: 『애린』을 중심으로」, 『동학학보』 40, 동학학회, pp. 243-276.
- 최원식 외 엮음(2006), 『20세기 한국소설 45』, 창비.
- 테드 W. 제닝스(2014), 박성훈 옮김, 『데리다를 읽는다/마음을 생각한다』, 그린비.
- 홍정선(1989), 「연꽃을 드는 싸움-김지하의 최근 시」, 『문학과 사회』 2(4), 문학과지성사, pp. 1519-1528.
- Derrida, Jacques (2008), *The Gift of Death & Literature in Secret*, trans. David Wills, The U of Chicago.

ABSTRACT

Is it Impossible to Mourn the Martyr?

Choi, Seoyoon*

With a Focus on Kim Chiha's *Aerin*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Aerin* 1·2 (1986), published by Kim Chiha after his transition to the theory of life, as a case that reflects the ‘impossibility of mourning for the martyr.’ In contemporary Korean political history, a ‘martyr’ refers to a person who becomes a historical hero by sacrificing her or his life to accuse the authoritarian regime. Important to note here, studies focusing on the aporia embedded in the ‘politics of martyrs’ have been recently published. Aligning with these previous studies, this article performed a symptomatic reading of *Aerin* based on the problematic awareness that Kim Chiha’s transition to theory of life in the 1980s was related to the aforementioned aporia. *Aerin* is the text that represents the transition to the theory of life. It is well known that Kim Chiha declared life as the ‘source’ of everything. The movement toward the origin represented in *Aerin* is driven by the ‘impulse toward novel life.’ The impulse toward novel life drives the poetic subject of *Aerin* to become a novel subject by returning to the origin, and such process of becoming a new subject is portrayed in *Aerin* as an encounter between *Aerin* and the poetic subject. Therefore, with

* Full-Time Lecturer, Division of Liberal Arts and Sciences, Gwangju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a critical distance from previous studies that discussed *Aerin* as the text in which the poetic subject finds the absolute truth, this article analyzes the impossibility of meeting *Aerin* with the poetic subject. Therefore, this article presents that *Aerin* is the text paradoxically requires to deconstruct the literary history of 1980's in Korea by mirroring the symptoms of the era.

Keywords Kim Chiha, *Aerin*, Poetic Subject, Impulse Toward Novel Life, Repression, Incorporation, Transcendence, Politics of Martyrdom, Impossibility